

서울역 회군 연구.

신군부의 심리전과 학생운동의 대응

오세제 | 서강대학교*

| 국문요약 |

이 논문은 1980년 서울의 봄 상황을 학생운동가들의 구술과 저술, 계엄사령부 상황일지 등을 통해 분석적으로 재구성했다. 20만 명이 모였던 5.15 서울역 집회에서 2번의 회군 선언이 있었고, 이수성 학생처장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대 학생회가 80년 봄에 대중에게 지도력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밝혔다. 서울대 학생회와 학생운동 지도부는 준비론의 영향을 받았고, 대중운동의 경험과 희생정신이 부족해 스스로 군부와 싸울 기회를 잃어버렸다.

신군부는 '북한의 남침과 공수부대 출동' 유언비어와 언론의 일방적 보도와 통제, 편의대와 망원을 활용한 심리전을 전개했고, 야당과 재야인사에게 역정보도 흘렸다. 서울대 학생회와 학생운동 지도부는 공포 속에서 회군 결정을 했다. 서울역 회군은 마이크로버스 속에서 서울대 학생회가 일방적으로 다른 대학 학생회장들에게 주장했다는 점을 드러냈다. 민주화의 길 10호(1984)에서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는 서울역 회군의 전술적 오류를 인정했지만, 지금은 의견이 갈린다.

서울역 회군은 군부에게 5.18 이후 유일한 저항세력인 광주에 대한 폭력 진압의 당위성과 자신감을 강화시켰고, 20사단과 3개 공수특전여단의 집중을 가능하게 했다. 저자는 심리전 개념을 사용하여 40년 이상 외면당한 서울역 회군의 진실을 밝혔다.

주제어 | 서울역 회군, 서울의 봄, 학생회,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 심리전, 유언비어, 준비론

* 주저자.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1. 서론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96도3376)을 통하여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행위에 대하여 법률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79년 12.12는 군사반란이고, 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내란행위이며, 이에 맞서서 79년 10.26 이후 80년 5월 27일까지 학생, 시민들의 저항 행위는 군사반란 및 내란 저지 투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국가 반란과 내란은 5.18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97년 대법원 판결로 12.12와 5.17, 5.18은 하나의 대사건이 되었다. 그에 저항하는 민주화투쟁도 전두환 신군부세력과 맞서 싸운 같은 성격의 투쟁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서울의 봄’은 바로 신군부의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와 내란 행위에 맞선 시민, 학생들의 7개월여에 걸친 저항을 말한다. 조희연은 사회비평 창간호(1991)에서 80년대의 사회운동사는 집권세력과 사회운동세력 간의 두 차례에 걸친 대치전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했다. 80년의 광주항쟁이 첫 번째 대치전인데 사회운동이 참담한 패배를 했고, 사회운동이 역량을 축적하면서 87년 6월투쟁에서부터 대통령선거까지의 또 하나의 대치전이 있다고 한다. 이런 대비 구도는 비단 이 글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통점은 첫 번째 대치전은 서울의 봄을 생략하고 광주민중항쟁만 언급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군의 발포가 없고 사망 등 피해가 적으며,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기하여 신군부에 완패했다는 자괴감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 경우 박정희 사후 1980년이라는 중대한 정치변혁

기는 열흘간의 5.18광주민중항쟁으로 제한되고 만다. 시간적으로 10.26부터 12.12를 거쳐 사북항쟁과 서울역회군까지 7개월여의 투쟁이 공식적 기억에서 사라지고, 공간적으로 광주를 넘는 전국성도 사라지고, 양상도 물리력전과 심리전을 포함한 총력전에서 그 다양한 측면이 사라지고 5.18광주민중항쟁만 남게 된다. 이제 대치전 개념 아래서 서울의 봄의 심리전과 광주민중항쟁의 더 고도화된 심리전과 전면적 물리력전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일차적 목표는 권력을 쟁취하려는 신군부와 민주주의를 획득하려는 학생들과 표면상 중립을 표방하는 미국의 각축이 있었던 서울의 봄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해보는 것이다. 많은 증언과 논의가 공론의 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논쟁은 책임있는 관련자들을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연구는 먼저 서울의 봄 시기에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비교표를 통한 교차 확인과 검증은 통해 상황을 재구성하는 연구방법으로 진실을 드러내겠다. 특히 연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울역 회군을 중심으로 맥락을 밝혀 보고자 한다.

서울의 봄과 서울역 회군의 진실규명과 원인 찾기가 이제야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최근 몇 년 사이 허장환(2018), 김용장(2019) 증언을 비롯해, 전일빌딩 10층에서 헬기 사격 탄흔이 추가발견(2017) 되었다. 북한군 출신 탈북자 김영국이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2021)했고, 지만원이 광수 1호라고 주장했던 김군이 스스로 차복환이라고 밝혔다(2022). KBS가 공수부대원 840명의 얘기를 들어 ‘3공수 42년 만의 증언’(2022)도 나왔다. 광주 밖 전국의 5.18 진상(2022)도 당사자들 중심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2006)가 상당한 양의 자료를 찾아냈고 1,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기록원 등에서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사실을 규명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수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구술을 아카이브에 남겨놓았다. 광주광역시는 자료, 색인까지 총 63권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료총서를 만들었고, 미 대사관 전문(telegram) 자료만 6권이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학생과 신군부를 중심으로 1980년 서울역 회군의 전모를 드러내려

한다. 역시 중요하지만 미국과 최규하 정부, 여야당, 재야 변수는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연구의 취지는 E. H. Carr가 말한 것처럼 역사와 대면하고 과거와 치열하게 대화하려는 것이다. 모두가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할 때, 비로소 이 비극이 온전한 집단적 사회적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연구는 왜 필요한 것이고 어떤 시사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자타가 공인하는 도덕적 정당성보다는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양심의 목소리가 훨씬 더 소중하다. 자신의 정당성을 자부하면서도 의심할 수 있는 모순어법이야말로 미래지향적 정치를 추동하는 문법이다”(임지현 2019, 276-277). 나는 서울역 회군 상황 속에서 권력을 획득하려 한 신군부와 함께, 도덕적 정당성을 가졌던 학생운동가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80년 서울의 봄에 저항세력의 중심에 있는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¹⁾와 서울대 학생회²⁾를 포함하여 서울지역 학생회장단의 흐름을 중심으로 관찰했다.

II. 선행연구 검토

유경남(2021)은 2020년 현재 5.18 광주민중항쟁 관련하여 학술지 소논문 536편, 학위논문 117편(석사 95, 박사 22편)이 넘는 학술성과를 축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2023년 5월 현재 학술검색 사이트에서 서울의 봄에 관련된 논문이 11편 있고, 서울역 회군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은 찾을 수가 없다.

서울의 봄에 대한 선행연구로, 민주화의 좌절 요인을 다룬 두 개의 연구가 있다. 김동성(1993, 55-56)은 서울의 봄의 좌절은 일차적으로 신군부에게 책임이

1) 복학생 지도부는 김병곤 등이고, 재학생 지도부는 76 이원주, 77 김명인, 최영선, 현무환이다(현무환, 2006, 11).

2) 서울대 학생회 지도부는 학생회장 심재철,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 대의원회 의장 유시민이다.

있지만, 학생들의 민주화 열정을 체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이행과정의 동력으로 이끌지 못한 야권과 반정부진영(신민당과 재야 민주세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주신(2008, 90)은 민주화 좌절 요인으로 신군부의 권력욕을 가장 강조했지만 동시에 최규하 정부의 리더십 부재, 정치권의 고립과 3김의 대권욕, 유신 체제와 비상계엄의 엄연한 존재를 제시했다. 두 연구 다 중요한 행위자들을 주목했지만 상황 속에서 구체적 역할에 대한 평가에 이르지 못했다.

‘유산된 민주화(aborted transition)’라는 개념을 만들고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당시 행위자의 선택을 연구한 임혁백(1990)은 군부 내 강경파가 ‘독재자 없는 권위주의’의 지속을 주장했고, 관료 및 독점자본과 연합해 새 지배블록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연합은 신민당 주도의 제도 개혁을 통한 민주화를 주장하는 점진주의자와 대중동원을 통한 민주화를 주장하는 행동주의자로 분열했고, 학생운동도 재학생지도부 중심의 단계적 투쟁론과 행동주의 노선을 따르는 복학생 중심의 전면적 투쟁론으로 분열했다. 그는 신군부는 위협능력을 보유한 데 비해 반대세력은 ‘위협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counterthreat power)’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민주화세력의 선택지는 신군부에게 항복하거나 민중의 ‘거리의 힘’을 동원해 직접 대결하는 것 뿐이었다고 했다. 신군부의 입장에서 최상의 선택은 전면대결을 통한 권위주의 체제로의 복귀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민주화세력을 자극하여 폭력을 유도했다. 민주화세력을 거리로 끌어냄으로서 전면적 대결을 유도하여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손호철은 5.15 서울역 회군이 결정적 오류였으며, 임혁백은 마치 재야와 정치권이 최소주의적으로 단결했으면 민주화가 성공했을 것으로 가정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화세력이 회군이 아닌 정면승부를 택했으면 군부와 충돌이 불가피했고 승리했으리란 보장은 없으나, 5.18보다는 승리 확률이 높았을 것이고, 설사 패배했다라도 충격은 5.18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나아가 5.18처럼 지배세력이 특정지역의 지역문제로 호도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997a, 358-359). 아울러 12.12로 이미 체제 내의 온건파는 소멸했기 때문에 타협에 의

한 민주화는 물건너갔고, 민중운동에 남은 대안은 강경과 중심의 최대주의적 단결이 결과에 상관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1997b, 385-386)고 한다. 이런 점에서 1980년 민중운동은 투쟁방식에서 최소주의와 최대주의가 분열해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한다. 그에 비해 87년 6월항쟁은 투쟁목표는 직선제 쟁취로 최소주의적이었지만 투쟁방식은 재야와 야권 정치권까지 거리로 뛰어나와 최대주의로 단결했다는 것이다. 임혁백과 손호철의 주장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지만, 둘 다 거시적 관점의 평가이고 구체적 미시적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강원택(2018)은 전두환과 신군부의 쿠데타는 5.16과 같은 일회적인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10.26 이후 5.18에 걸친 6개월의 기간 동안 갈등과 견제, 상호배제를 통한 ‘긴 쿠데타’이며, 주요 정치적 행위자인 신현확, 최규하, 김종필 역할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 결국 김종필은 박정희가 길러놓은 TK세력 앞에 무너졌고, 최규하와 신현확은 미묘한 경쟁과 견제로 분열돼 결국 신군부의 전두환이 쿠데타를 완성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대치전으로서 서울의 봄’과 가장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정상호(2018)는 신군부를 중심으로 한 촉발요인(push factor)과 여타 정치 세력의 무능력 등 유인 요인(pull factor) 간의 공모라는 상호작용을 주목하지 못하고 이 둘을 별개 요소로 취급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최규하-신현확 과도체제’의 갈등이라는 부차적 현상에 빠져 ‘신군부’라는 심층 권력의 작동을 놓쳤다고 비판한다. 특히 최규하는 정승화 체포를 재가하고 전두환을 중정부장 서리에 임명하며 민주화에 해악을 끼친 신군부 공모자라고 비판한다.

최근 연구로 한성훈(2021)의 신군부 학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다. 국보위를 비롯한 신군부의 내부분건을 활용해 지도교수제를 중심으로 학원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보여준다. 동시에 대학 당국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문교부의 지시에 순종하여 직권휴학과 강제징집으로 학생의 인권을 탄압했는지 연세대, 경북대, 송전

대의 사례를 보여준다. 전재호(2023)의 연구는 프라하의 봄과 서울의 봄을 비교하여 차별점에 주목하여 왜 서울의 봄이 실패했는지 밝힌다. 기존 연구들이 간파했던 지배세력 내부의 개혁파의 부재, 시민사회의 비활성화, 언론 및 시민들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의 부재를 지적한다.

각 논문들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회군의 성격을 5.18 광주민중항쟁과 비교해 밝히거나, 그 주역인 학생운동의 한계를 깊이 있게 분석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긴 쿠데타로서 서울의 봄의 대치전적 성격을 밝혀내거나 서울역 회군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이르지 못했다. 또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괄적인 거시적 평가를 하고 있고, 미시적 분석을 통해 80년 서울의 봄에 대해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평가하는 경우는 없었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구술이나 자술서를 통한 구체적 증언과 상황모사가 없고, 계엄상황일지와 같은 신군부 자료도 한성훈(2021)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신군부와 학생운동에 한정해 서울역 회군의 구체적인 상황을 재구성하는 미시적 분석을 시도한다.

Ⅲ. 서울의 봄의 특징

1. 심리전의 정의

심리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거의 항상 함께했다. 사례로는 초한지에서 유방이 항우를 포위하고 초나라 민요를 불러서 항우의 부하들의 사기를 꺾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탈주하게 만든 사면초가의 상황과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이 부는 시기를 알면서 자신의 기도에 하늘이 화답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위장한 제갈공명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신라 김유신이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의 결사대에 막히자 젊은 화랑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병사들의 투지를 끌어올렸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잔인한 방법으로 영토나 지역을 짓밟아 '공포'를 자극하는 몽골의

칭기즈칸도 심리전의 대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폭격 예고장’은 심리전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미군이 예견한 장소에 폭격을 하니 적국 국민들이 이 전단지를 믿게 되었다. 유엔군 측은 한국전쟁 3년 동안 최소 25억 장에서 최대 40억 장의 빠라를 제작해 한반도에 살포했다(김용진 2020).

폴 라인바거는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에 대하여 “명백한 군사적 적대 행위 없이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기 나라의 정치·외교·군사 면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이다(2020, 47-59). 대만의 왕승(1967)은 심리전을 “적을 정신적으로 패배시킴으로써 전투의지와 조직을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사상에 기초를 두고 정보에 입각하여 진행되며, 적국 개개인의 심리적 변화는 물론 집단과 지도층의 심리적인 변화까지도 의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조직 및 선전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심리전 이해』의 저자인 이재운은 “인간의 정신에 어떤 심리적인 자극을 주어야 주체가 요구하는 의도대로의 효과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느냐가 심리전 원리의 핵심이다(2000, 13-18).”고 했다. 즉 심리전은 물리적 전쟁과 병행하여 혹은 물리적 전투를 기다리지 않고 특정한 집단의 의식에 작용하여 적의 전투의지를 감퇴·소멸시키거나, 아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여론의 지지를 높이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2. 신군부의 심리전

폴 라인바거의 정의에 따르자면, ‘5.15 서울역 회군은 군대의 투입 없이 학생과 시위자들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 스스로 회군하게 함으로서 신군부에 유리하도록 이끈 작전 사례’라고 해석된다. 허나 당시 신군부는 80년 2월부터 가혹한 충청훈련으로 독이 오른 20사단과 공수특전단을 동원했고, 경우에 따라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였다. 서울역 집회를 물리적으로 진압할 준비를 갖추고도 물리적 적대행위 없이 학생들의 자진 철수라는 결과를 만든 점에서 신군부

심리전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심리전을 이끈 자가 전두환이다. 그는 58년 대위 진급 후 새로 창설하는 공수단에 지원해 군사영어반을 마치고 노태우와 함께 59년 12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래그 특수전학교(레인저 코스)와 심리전학교를 수료했다. 73년 1월 전두환은 제1공수특전단 여단장을 맡았었고, 79.10.18 보안사령관으로서 부산에 가서 부마항쟁의 현장을 관찰한다. 신군부 총책임자가 심리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80년 5월 보안사가 중심이 되 학생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했다. 전두환은 이학봉 수사국장에게 학원소요 근절 대책 수립을 지시했고, 권정달 정보처장에게는 시국 수습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했다. 또 5월 16일 국방장관에게 다음날인 17일 전군 지휘관 회의를 요구했다(김충립 2016b, 167-170).

『손자병법』(손무 2010)의 가장 큰 메시지는 ‘최상의 승리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꼭 싸워야 한다면 미리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싸우라’는 것이다. 1980년 서울의 봄에 신군부는 명분과 힘이 부족한 상황에서 권력욕을 냉정히 통제하며 치밀한 심리전을 전개하였고, 그 승리 직후 광주에서는 편의대를 통한 유언비어와 선동도 했지만, 처음부터 공수특전단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그 직전에 있었던 서울역 회군은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의 선봉인 학생운동이 신군부의 심리전에 의해 투쟁의지를 상실한 채 스스로 철수하여 전략적 패배를 당했다. 전투에서 이기는 전술적 승리도 중요하나 상대의 전의를 꺾고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서울역 회군 결정은 광주를 고립시켜 패배를 자초했다.

서울역 회군과 광주항쟁 때 신군부의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신군부는 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직접접근으로서 2개 사단과 3개의 공수여단을 동원했고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집단발포와 헬기사격과 같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정면공격을 했다. 정치적으로 더 민감하고 외교 공관과 해외 기자들 때문에 직접 공격하기 어려운 서울에서는 5월 15일 간접접근을 했다. 심리전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철수하도록 했다. 5월 15일 서울역 회군은 신군부가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를

수차례 테스트하여 실행능력을 확인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심리전을 감행해 성공한 것이다.

3. 서울역 회군의 심리전의 내용

신군부는 먼저 정보를 집중할 시스템을 건설했다. 1980년 4월 중정부장 서리가 되면서 정보를 독점했고 결국 서울역 회군을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안사에서부터 K-공작을 시작했고, 언론사 간부들을 회유하고 검열을 강화해 북한 남침설과 공수부대 출동 유언비어가 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다음 역정보공작으로 재야와 야당의 오판을 조장하고, 편의대를 동원해 회군을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신군부는 공개적 활동을 통해서 적을 와해시켰다.

1) 전략적 정보를 수집할 구조적 능력 확보

먼저 고급정보를 모을 시스템을 건설했다. 10.26 이후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권력을 장악하려면 군권과 함께 정보와 언론을 장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2·12 군사반란에 성공하자마자, 전두환은 12월 13일부터 중앙정보부 차장보를 겸임했다. 보안사가 중정을 10.26 이후 거의 점령한 상태에서도 법규정 때문에 받지 못했던 국내외 정보보고를 12.13 이후 받기 시작했다. 12·12 이후 이희성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면서 중정부장 서리 자리가 공석이 되자 전두환은 1980년 3월 말 중정부장 서리 겸임을 양해해달라고 신현확 총리에게 요청했으나 신현확은 반대했다. “정보는 권력과 깊은 연관이 있고, 두 기관의 정보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이너스”라 주장했다(신철식 2017, 323-324). 그러나 2주 만인 4월 14일, 최규하는 전두환을 겸임 발령했다. 1980년 3월 1일 육군 중장으로 진급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군 인사법 위반 논란 속에 4월 14일 제10대 중정부장 서리로 취임해 국내 대형 정보기관을 장악했다. 동시

에 그는 김재규 전 부장이 임명한 실·국장, 단장급 간부들을 대폭 물갈이했다(UPI뉴스 2019/5/8). 전두환이 중정부장 서리로 가고자 한 것은 정보의 독점, 중정 예산, 그리고 부총리급으로 국무회의에서 최대통령을 수시로 만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대통령과 중정부장, 안보관계장관, 각 군 참모총장 만이 참석하는 ‘주요회의’가 있어 회의를 주도할 필요를 느꼈을 수 있다”(한용원 검찰증언 95/12/16). 심리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정보의 독점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전두환은 5월18일 중정부장으로서 CIA한국 지부장 브루스터를 만나 5.18에 대해 설명한다. 대화 중에 “데모 주동자 중 온건학생들의 정보제공 협조를 받고 있다³⁾”는 전두환 발언(배진영 2013, 21)은 매우 중요하다. 인공위성 정보나 감청 정보 등 압도적 기술력을 가진 미국에 비해 한국도 휴민트로 중요한 정보와 첩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과시라고 추정한다. 그래야 같은 수준의 정보 교환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화도 학생운동의 핵심과 통한다는 것이다.

중정은 이전부터 망과 프락치를 운용했다. 2004.11.2. 출범한 ‘국정원 과거사 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2007년 6권의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출판해 학원에 대한 개입과 통제 실태를 공개하였다. 1980년 정보기관(치안본부, 보안사 포함)이 운용한 학원망은 총 684개였다. 이들은 학원 사찰을 위해 보수를 주는 자발적 협조자의 ‘망’과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구성된 ‘프락치’를 활용했다. 군부는 이런 과정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심리전을 준비했다.

특전사 정호용 사령관 정보보좌관이었던 김충립은 전두환이 집권을 준비한 것은 80년 2월이라고 한다. 12.12 이후 합수부와 하나회 회원 사이에는 묵시적 공

-
- 3) 주동자라면 주요 대학 학생회장이나 서울대 학생운동의 지도부를 지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망에는 학도호국단 간부(6.2%), 서클 간부 학생(26.3%)을 비롯하여 교수와 교직원(18.5%)도 포함하였다. 중정은 교수들의 성향분석은 물론이고 사회비판적 교수의 승진 제외와 교수재임용에도 개입하였다. 한신대 국사학과(학생 53명 중 건대사건 28명 가담)는 폐과를 검토하다가 신학과와 함께 총장 경고로 마무리한다. 건전한 유인물, 서클 및 총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후보를 출마시키고 지원하기도 하였다(국정원 2007, 48-145).

감대가 있었지만, 전두환은 정호용에게 80년 2월 초 정당이 필요하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냐고 한 점을 중시하며, 이 때부터 대통령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정치공작이 시작됐다고 본다(2016a, 152-154).

2) 언론을 통한 유언비어 전파와 보도 통제

신군부는 민주화 여론을 잠재우고 정권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언론공작을 시작했다. 유언비어도 공개적 언론을 통해야 대규모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1980년 2월 보안사가 2처(정보처)에 ‘언론대책반(이상재 준위)’을 만들고, 여기서 80.3.25부터 K-공작을 시작했다. “K-공작은 안정세력 구축을 목표로 14개 언론사 정치부장 이상 94명을 대상으로 한 보도 검열과 회유공작이다”(김영택 2010, 204-205). 한용원 전 보안사 정보처장은 회고록(2012, 71)에서 “3김과 그 측근을 배제하고 언론을 조종, 통제한다면 정권 장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고 권력 획득을 위한 언론공작에 동의했다. 재향군인회가 발간한 12.12, 5.18실록(1997, 221-222)은 “11쪽의 필사본인 K-계획은 정권강취를 위한 기초 작업의 대표적 사례”라 밝힌다. ”79.10.27-81.1.24 계엄기간 456일 동안 언론 사전검열로 27만 7,906건의 기사 가운데 1만 1,033건(4%)을 전면 삭제하고, 1만 6,025건(5.8%)은 부분 삭제해 합 2만7천건(9.8%)을 삭제했다“(이민규 2020). 1980년 5월 20일에는 거의 전 언론사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통해 보도통제에 저항하자 기자 250여 명을 해직했고, 11월에는 비민주적 언론 통폐합⁵⁾을 통해 기자 1,000여 명을 강제 해직시켰다.

언론공작의 사례를 보자. 5월 15일 시위와 경찰 사망사고에 대한 보도는 대대적이었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보도와는 전혀 달랐다. “이날 시위는 신군부가 바라는 혼잡정국이 되어 군 등장의 구실을 한 셈이 되고 말았다”(동아일보

5)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대령과 그 친구이자 조선일보 기자였던 허문도 전두환 중정부장 비서실장이 국보위에서 한 도에 하나의 신문만 허용하는 비정상적 언론통폐합안을 언론 개혁안이라고 만들었다.

80/5/16). AP통신 Sam Jameson기자는 “실력자 전두환이 5월 13일부터 시작된 학생시위를 격려하는 것처럼 보였고, 경찰은 시위학생 대열이 서울거리로 진출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한국기자협회 1997, 111; 김영택 2010, 226-227 재인용). 5월 15일 고대 학생회장단 회의의 시위 자체 결정이나 17일 이대 학생회장단 회의 해산과 회장들 연행 사실은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1980.5.6. 학생시위 관련 검열지침에는 ‘국민에게 학생 데모가 부당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장면에 한해서 보도를 허가한다고 했다’(나의갑 2021, 228).

유언비어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을 말한다. 서울역 회군 유언비어의 핵심은 ‘공수부대 출동’이다. 이미 79년 10월 부마항쟁 진압 시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폭행과 역할이 큰 영향을 미쳤다.⁶⁾ 5월 15일 공수특전단의 이동 소식과 6시 군 투입설은 학생들에게 겁을 주어 대오를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졌다. 이런 고백은 서울대 지도부에게서도 나왔다. “왜 이걸(서울역 집회) 계속할거냐를 고민했냐 하면 용산 쪽에 특전대가 집결해 있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거를 퍼뜨리는 거는 선배들이었다. 복학생들. 김대중 쪽은 계속해서 해산하자. 잘못하다가는 유혈사태 난다는 쪽이었다”(김명인 2019, 64).

다음으로 대표적인 유언비어는 ‘북한 남침설’이다. 육군본부 수뇌부는 일본 내 각조사실 발 남침설이 근거없는 첩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었다. 미국도 몇 차례나 근거없는 정보라고 확인했고, 5월 13일에 전두환이 위کم사령관에게 학생시위 배후에 북한이 있고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주장하자, 위کم은 전두환의 청와

6) 계엄군은 시위대를 공격해 해산시켰다. 흩어진 시위대가 재집결하면 다시 공격하여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포탄을 발사하며 시위진압을 주도했다.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면, 공수특전단은 시위대에 돌격하여 무차별 폭행을 가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도 공수여단의 개머리판과 곤봉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시위대에 동조를 표하는 시민들을 개머리판으로 가격하고 군홧발로 차서 머리뼈를 골절시키고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3공수에 대해서는 군 당국조차 “철저하고 간담이 서늘하게 진압작전 실시”하여 “데모 의지 말살”하였다고 자평했다(보안사 정보처 1979, 7).

대 입성의 구실로 보인다고 국무부에 보고하고 북한군의 대남 공격 조짐은 찾을 수 없다고 언론에까지 공개했다(김삼웅 2010, 510). 그럼에도 계엄사령부 회의에 남침설이 계속 제기됐다. 5월 12일 일반참모부회의에서 황영시 육참차장 겸 계엄부사령관이 “북괴가 남침준비를 위해 병력 전개를 완료했다는 일본의 첩보가 벌써 6회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체면이 선다는 것인가? 혹시 그들의 고등술책일 수도 있다”라고 짜증을 냈다(노영기 2020, 102; 서중석 2007, 166). 80년 5월 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유일하게 군의 정치개입을 반대했던 안중훈 당시 군수기지사령관은 1995년 1월 검찰에서 “신군부가 정권 찬탈을 위해 신현확 총리를 속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다(노영기 2020, 107-108).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5월 17일 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회의 참가자들은 그 정보의 위중성 때문에 계엄령의 전국 확대에 동의했다. 남침설이 사실처럼 보도되었을 때 서울 시민들은 불안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과 시민의 숫자를 줄여 보도하고 시민의 참여와 호응이 없었다고 애써 외면하며 시위대에 쏟아진 빵과 물, 휴지, 수건 등 지지 성원의 증거들은 보도하지 않았다. 실제 학생들은 14, 15일 가두투쟁이 급박한 결정이라 유인물도 준비하지 못하고 선전에 취약했으나, 시민 호응이 없었다는 평가는 20만 명이 운집한 서울역 집회에 대한 일면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서울시민은 6.3시위 외엔 이런 가두시위를 본 적이 없는 데다, 교통도 막혀 불편하고 언론에서 북한의 남침 얘기를 많이 해서 걱정이 컸을 것이다.

구로에서는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학생 시위대가 접근하자 해산해버렸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조선일보(1980/5/15)는 “노총회관에서 13일부터 ‘노동3권 보장’, ‘김영태 노총위원장, 김병용 금속노조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철야농성을 하던 원풍모방 등 35개 회사 8백여 명의 노조원들은 14일 오후 6시 농성을 풀고 자진해산했다. 농성에 참여했던 노조지부장들은 “최근 주변 정세의 악화로 일단 해산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히고 정세의 추이에 따라 다시 모여 투쟁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 학생들 행진을 보도하면서 ”5시

20분경 끝이 보이지 않는 학생대열이 여의도 노충회관 앞을 지날 때 노총간부들이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피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운동가 유동우는, ”동일방직 등에서 학생운동 출신들이 지원도 많이 했고, 그날 해산이 학생 시위 때문이라는 것은 과장“이라고 한다. 당시 어용이라고 비판받던 노총 간부들이 학생들과 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합류를 겁냈던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보도는 노동자들도 학생시위를 두려워하고 경원시했다는 의도성 메시지에 속한다. 심재철은 “오후 6시쯤 우리가 그 곁을 지나가면서 동참을 촉구하자 지레 겁을 먹고 자진해산해버렸다. 80년 당시 노동운동의 수준을 가늠케 한다. 인식수준이 저열했다”(심재철 1997, 116-117)고 했다.

당시 언론의 시민과 학생 반응에 대한 보도를 보면, 15일 시위자 수를 경향신문은 5만, 동아일보는 7만, 조선일보는 5만 명이라고 보도했다. 문교부가 만든 80 하반기 학원대책에 따르면, 서울 36개교, 61,000명, 지방 32개교, 33,800명이다. 신계륜은 학생만 10만 명이 넘었다 했다(2011, 42). 김충립(2016b, 165)은 학생 10만, 빼앗긴 서울의 봄(1994, 125)도 학생 시위대가 10만 명에 가깝다고 본다. 14일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 15일 6면 헤드라인을 보면, “심야에 자진해산/ 대학생 가두시위...무거웠던 서울/ 일부 회사들 퇴근시간 앞당겨/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 요구/ 시민들은 걱정스런 표정도”이다. 17일 7면에 보면, “국민반응 차갑다” 대학가 자성론/ 시위효과 자체평가 만발/ 열띤 찬반토론...새방향 모색 등이다. 서울역 회군의 날인 15일 상황을 보도하는 16일 기사에는 사건 보도가 넘쳐 시민반응은 없다. 보도 내용은 더욱 심각하게 편향되어 시위 학생들의 실패를 단정하고 있다.

5.18 때 유언비어는 충실히 연구되어 있다.7) 오승용(2012)은 “유언비어 폭동

7) 나의갑(2021, 264-265)은 “유언비어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다섯 차례 살포되었다. 5.20. 광주에 간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의 담화와 22일 전두환의 서울지역 언론사 대표들과의 광주사태 간담회에서 말한 허위사실들이 해당된다. 광주가 생산하고 뿌린 것으로 되어 있는 유언비어는 21일 오전 계엄사 첫 공식 발표문과 오후 7시30분 이희성 계엄사령과의 특별담화문, 26일 계엄사의 발표문이다. 이 셋은 광주를 그 유언비어에 부화뇌동한

론이야말로 신군부의 공작의 핵심”이며 “오히려 신군부야말로 5.18의 진실을 왜곡, 조작하여 언론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주범”으로 파악한다. 은우근(2019)은 “보안사가 주도한 대국민 여론조작과 심리전의 충실한 도구로 쓰인 것이 언론이었다”며 “신군부 세력은 언론을 통해 참혹한 진실에 관한 소문은 유언비어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뒤집어씌웠다.”(나의갑 2021, 267-268 재인용). 그러나 광주민중항쟁 이전 서울역 회군 당시 유언비어 연구는 이제 시작이다.

3) 역정보 공작과 편익대 활용

재야와 야당의 오판을 유도하는 분열 공작도 하였다. 12.12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11월 24일, 여권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체육관 선거로 12월 6일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려는데 반발하면서 대통령 선출을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열었다. 계엄 상황이었으므로 YWCA에서 결혼식을 위장해 집회를 준비했다. “임채정 당시 국민대회 준비위원장이 후일 이종찬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군부의 지령에 의해 당시 중앙정보부에 근무했던 이종찬이 윤보선을 만나 신군부가 돕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나, 당시 군 내부 싸움에 겨를이 없을 신군부가 무슨 수로 재야까지 조종을 했겠는가, 만약 그랬다면 신군부는 전지전능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윤보선이 안국동 자택으로

폭동으로 직조한다. 첫 발표문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광주에 잠입한 불순분자들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으로 조작하고, 특별담화문은 ‘불순인물 및 고첩들이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난동행위를 선동했다’고 왜곡한다. 26일 발표문은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고첩들이 광주 일원에 진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고, 파괴, 방화, 무기탈취 등을 선동하는 등 폭도화되었다’고 한다. 헬기에서 떨어진 유언비어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에 속지 말라, 복귀는 간첩과 오염을 침투시키고 있다, 이들이 방화, 파괴, 유혈사태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했다.”

8) 그는 육사 16기고 1964년 미국 육군특수전학교 심리전 과정을 마침. 1965년 육군 대위 재직 중 정보장교가 되어 중앙정보부로 발령됐고, 중앙정보부 1기 공채에 합격함.

조성우를 불러 신군부가 재야의 반대 행동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다는 전갈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 안건으로 민청협 운영위에서 보고와 논의가 있었고 무시하기로 결정했다”(조성우 2018, 539-543)는 것이다. 그러나 행사는 홍성엽 등 700명이 이상이 모이고, 별도로 양관수 등 300명이 가두행진을 했으며, 154명이 기소되었고 보안사 서빙고분실에서 참혹한 고문에 시달렸다.

중정은 야권 지도자에게도 직접 잘못된 정보를 건네기도 했다. 당시 국민연합의 사무총장이었던 이현배의 증언을 들어보면, “박세경 변호사가 동교동 DJ 집에서 DJ와 셋이 얘기 도중 ‘7월 1일에 계엄이 해제되며 민간 정치활동이 재개된다. 소스는 군부의 호남 출신 장군’이라고 했다.”(이현배 2022). 이현배는 이것을 마타도어라고 본다. 야당 지도자에게 신뢰할 만한 인물을 통해 오판을 유도하는 정보를 준 것이다.

부마항쟁 당시 계엄군은 사복을 착용한 편의대를 구성해 검거작전을 구사했다. 마산지역 위수령 발동 이후 소요진압 작전 개시를 보고한 상황일지에는 10월 20일 15시경 6명이 1개조로 편성된 10개조 60명이 사복을 착용하고 군중 속에 침투 주모자를 색출하도록 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 작전에는 5공수특전단이 동원되었다(보안사 상황보고(1979.10.21) 11. 부마민주항쟁진상조사보고서(2022) 442 재인용) 10월 22일 마산의 전 지역에서 6시부터 19시까지 5공수특전단 편의대가 운용되었다. 3명이 1개조인데 주간에는 4개조 12명이, 야간에는 8개조 24명이 투입되었다(보안사 상황보고(1979.10.23.) 5. 재인용). 공수특전단에 복무하던 홍성택씨는 79년 10월 마산에 투입되어 편의대 활동을 했다고 증언했다(한국일보 2019/5/15).

편의대 활동은 공수특전단의 비밀스럽지만 고유한 업무다. 5.18 당시 광주에 있던 미군 정보부대에서 활동했던 김용장씨는 2019년 5월 15일 증언을 통해 30-40명의 편의대가 활동했다는 증언을 했다. “80년 5월 14일-16일 30-40명 가량의 편의대가 광주 제1전투비행단 격납고에 있는 걸 내 눈으로 목격했다.” 505 보안부대 수사관이었던 허장환씨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전두환이 작성한 일

지에는 홍석률대령을 선무대장(편의대장)으로 광주에 내려보냈다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비행일지에도 선무공작원 몇 명이 탑승해 광주로 왔다는 기록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허씨는 “편의대는 무기고 습격조, 유언비어 유포조, 장갑차 탈취조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라며 “아시아자동차에서 군용 장갑차(APC)를 탈취해 운행한 것도 편의대의 소행”이라고 강조했다. 즉 광주시민을 폭도로 만들고 강경 진압의 명분을 쌓기 위해 사복 군인을 투입해 시민들을 교란시켰다는 게 두 정보요원의 입장이다(뉴스핌 2019/5/13; 2019/5/17). 5.18 때 광주에서 편의대의 존재는 문헌으로도 증명된다. “21일 오후 5시까지는 3개 공수부대, 전교사, 광주31사단 등 부대 별로 편의대를 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거로 5.19 진중채 2군사령관이 전남북계엄분소를 방문해 ‘다수 편의대 운용’을 지시했다(전교사 100). 5.21 오후 5시 이후 편의대는 전두환이 광주에 파견한 홍석률 1군단 보안부대장을 중심으로 경찰 편의대를 통합해 시민과 시위대를 이간질하는 분리공작, 교란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21 전남북계엄분소에 선무활동으로 시민과 불순세력 분리 등을 지시했다(전교사 103)”(나익갑 2021, 296-297).

서울역 회군 때는 편의대가 활동한 증거가 문헌상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79년 10월 부마항쟁과 80년 5월 광주항쟁에서 공수특전단으로 편의대를 운용했다면 80년 5월 공수특전단이 파견된 서울에서도 편의대를 운용했을 것이라 추론이 가능하다. 하나의 대치전이란 것이다. 같은 주체인 신군부에 의해 같은 공수부대로 꾸준히 학생시위 진압이 추진됐다. 문헌 증거가 안나왔다고 부정할 수 없는 근거란 것이다. 추정 사례가 여러 건 있다. 5월 15일 서울역 앞에서 심재철의 회군 선언에 반대하는 이선근의 주장을 주변에서 여러명이 ‘빨갱이, 과격분자’로 욕하며 몰아부친 사건(이선근 2019, 26)과 48번 상진운수 시내버스를 몰아전경에 충돌한 사건도 편의대의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회군에 찬성하는 학생이라도 학생이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신계륜이 조사받을 때 코 앞에서 버스 운전자를 봤다고 경찰에서 증언했음에도 일체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또 사건 피의자의 얼굴을 TBC방송이 찍었다고 전두환이 CIA책임자에게 얘기(배진영 2013, 19)했는데 이후 수사 결과가 공개된 적이 없다. 이들 이야말로 과격행동을 선도하고 공수부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편의대였을 가능성이 많다.

4) 공개적인 활동을 통한 적의 와해

이것은 언론이 아닌데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비밀공작도 아닌데 적을 와해시킨다. 가장 대표적인 의문은 이수성교수의 역할이다. 5월 14일 심재철이 오전 11시 가두시위를 선언했고 오전 11시 50분부터 40분간 교문을 두고 두 대의 페퍼포그가 맹렬히 가스를 뿜어대고 최루탄, 투석전 전투 후 12시 30분경 경찰 부상자가 속출하자 경찰이 저지선을 풀어주었고, 이어 구로공단을 지날 때 이선근이 노동자들과 합류하자고 소리쳤을 때 버스 속에서 이수성 교수가 뛰쳐나와서 ‘노동자들과 합류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력하게 막았다(이선근 2022). 오후 2시 30분경 영등포역 앞에 학생 3,000명이 집결했다. 오후 2시 40분경 500여 학생들이 영등포시장 앞 도로에 연좌하고 있을 때 학교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부총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사회대학장, 인문대학장 등 10여 명의 학처장들이 학생들 앞에 섰다. 이수성 교수가 ”이제 교수들이 앞장설 테니 평화적으로 귀교하자“고 총학생회장에게 말했고, 심재철 회장이 학교로 돌아간다고 선언했으나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야유가 쏟아졌다. 학생회장은 불가피하게 다시 광화문에 가서 시위한다고 발표했다(유시민 1980, 3092-3096). 3,000명의 학생이 치열한 교문 전투를 거쳐 영등포시장까지 나간 상황에서 학교로 돌아가자고 한 것은, 학생의 안전을 위한 취지였어도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었다. 이 교수의 태도는 일관성이 있다. 그는 회장단도 아닌데 마이크로 버스 속에서 강력하게 발언했고, 반대하는 신계륜은 “나가라”며 버스에서 쫓아내려고 했다(한국일보 1994, 127)

심재철의 회군 결정에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준 것은 신현확 총리의 담화문 발표였다. 심재철은 그때까지도 회군하자고 학생들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오후 7시 50분 발표된 신현확의 담화문⁹⁾에서 ‘정치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며 회군을 강행한다. 그 내용은 권위주의적 타이름과 경교로 일관했다. 당시 반응을 보면 오홍석, 이기택, 박영록 등 신민당 의원은 물론이고 최치환, 신형식, 윤국노 등 공화당 의원도 담화문이 시국 수습에 별 도움이 안됐다고 얘기한다(경향신문 80/5/16. 1,2). 이런 내용을 듣고 계엄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대의 지도자가 회군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요인이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회군에 반대하는 다수 대중을 설득할 명분을 찾고 있던 준비론에 따른 ‘신념’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80년 5월은 서울과 광주 밖에서도 활발한 저항운동이 있었고, 신군부는 필사적인 예비검속을 감행하였다. 확대계엄선포 직전인 17일 22시부터 총 2,699명을 검거하였다. 이들 중 2,144명이 훈방되고 404명이 공소제기되었다. 기소율이 14.9%에 불과했다. 이 검거와 수배로 인한 피신 그리고 군의 학교 점령 때문에 광주민중항쟁 기간 전국에서 연대투쟁은 더 어려웠다.

9) 요약해보면, “지금 법과 질서를 깨뜨린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 적화통일의 야욕을 가진 북한공산집단이 보고만 있겠나? 학생시위로 야기된 사회불안으로 경제도 수렁에 빠졌다. 정부는 연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양대선거를 치러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정치일정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적절히 조정하여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앞당기겠다. 계엄령도 사회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즉시 해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제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가 면학에 정진해달라. 노동삼권을 비롯한 근로자의 권익보장은 현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선할 것이다. 전체 경제가 원활하고 기업이 활발해져야 보장할 수 있으니 슬기롭게 대처해달라. 학생들은 젊어서 걱정에 휘말리기 쉽고 사리를 잘못 판단하는 일이 있다. 학생들이 질서파괴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IV. 학생운동의 선택

1. 서울대 학생회 지도력의 위기

학기 초 서울대 학생회는 조급한 복학생들과 적절히 긴장을 유지하며 야당이 나 재야 정치권에 일방적으로 동원 당하지 않고 학생들의 의식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극단을 피하면서 다른 극단으로 기울어져 갔다. 정작 싸워야 할 때 회피한 것이다.

첫 위기는, 5월 2일 정오에 서울대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열린 민주화대총회 때이다. 4월 9일 성대의 병영집체훈련(이하 병집) 거부 결의문에 총학생회장들이 공동 서명하기도 하였고, 4월 10일 서울대 총대의원회에서 가결한 병집 거부 결의안과 배치되는 결정을 5월 1일 의결기관도 아닌 단대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내렸을 때다. 이 긴급한 결정 반복은 원래 운영위 구성원이 아닌 연성만, 심상완, 오세중 등¹⁰⁾ 복학생 6-7명이 20시 학생회 사무실 회의에 들어와 ‘민주화투쟁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니 병집 거부는 철회하고 신입생들이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인 5월 3일부터 시국성토대회와 공개토론회, 교내시위를 벌이며 비상계엄 문제를 이슈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대가 있었으나 설득되었다고 한다. 5월 2일 민주화총회와 거의 같은 시간에 총대의원회도 학생회관에서 열려 ‘운영위의 독선적인 응소 결정을 지지할 것이냐’는 의제로 토론한다. 결과는 96명 중 79명의 찬성으로 운영위 결정을 지지했으나,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운영위의 독선을 비판하면서도 총대의원회가 그 결정을 부인하면 학생회가 두 쪽이 난다는 생각 때문에 찬성했다고 총대의원회 의장 유시민은 증언한다. 민주화대총회에서는 전날 밤 갑자기 병집 응소 결정을 내린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궁지에 몰려있었다. 이때 김부겸이 탁월한 웅변력으로 총학의 결정은 아주 훌륭했다는 연설로 위기에 처한 총학을 구출해주었기 때문에 “김

10) 심재철(1980, 3060-3066)은 김경택, 김광한, 김부겸, 이해찬으로 기억함

부겸 형이 학생회를 살려줬다”라고 심재철이 얘기했다 한다(유시민 1980, 3061-3066).

두 번째 위기는, 5월 12일 소위 민주화 트레이닝을 끝내고 학생총회를 하고 단대별 민주화대행진을 한 후 학생회관 라운지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다. 오후 8시경 기자를 자칭한 사람이 전화하여 계엄군이 진주하니 피하라 하고 잠시 후 김경택도 찾아와 내게 피하라고 했다(심재철 1980, 126). 쿠데타다. 피신하라는 얘기가 학생회 사무실로 들려왔다. 오후 7시 30분 CBS뉴스에는 뉴스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아! 뭐야”하는 소리가 나더니 15초간 음악이 나왔다. 그 상황을 보고 “아, 이것은 쿠데타구나”라고 판단했다(심재철 1988/11/30). 심재철과 김병곤은 “13일 00시 계엄군이 수도권을 접수한다. 그리고 휴전선 부근에 긴장이 있다. 방송국에서 확인된 것이다.”라고 하고,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농성하는 학생 뒤처리를 내게 맡기고 충충히 복도를 빠져나갔다”(유시민 1980, 3086). 유시민은 오후 9시 10분 학생회관 2층 라운지로 가 농성 중이던 학생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오후 9시 30분에는 농성 학생들이 도망치듯 농성장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인 5월 13일 오전 11시 교문 앞에서 문무대를 퇴소한 1학년 환영식을 하고 다시 아크로폴리스에서 약 4천 명의 학생이 운집해 집회가 시작되자 연사들은 하나같이 12일 밤 공수부대가 남성대까지 왔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망친 학생회 간부들을 비난했으며, 신군부가 학생들의 저항정도를 실험해보기 위해 흘렸던 역정보였다는 얘기가 바로 돌아왔다(최석우 1996, 122). 신군부가 심리전을 구사했다는 것이다. 이 때 김부겸이 등장하여 “학생회가 잘못된 점이 있으나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복학생들이 통밥을 잘못 굴려서 그랬다”라고 학생회의 행동을 복학생들 책임이라고 사과함으로써 다시 한번 총학을 구해주었다. 그러나 총학의 권위는 떨어졌고 불가피하게 심재철은 “15일 학생총회에서 가두진출 여부를 결정짓겠다”라고 발표했다(유시민 1980, 3085-3088). 심재철은 선배의 잘못된 정보와 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갈망에 의해 원하지 않는 가두시위로 떠밀려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5월 15일 서울역 회군에 따른 책임 추궁이 있었던 5월 16일 오후 1시 아크로폴리스 학생총회다. 이때도 역시 박성현, 김부겸 등 탁월한 연설가들의 도움으로 총학은 위기를 넘긴다. 심재철 및 운영위원들 주장대로 당분간 가두 시위 없이 유인물을 통해 홍보활동할 것이 결의되었다(유시민 1980, 3104-3105). 그러나 5월 12일 공수부대 출동 소식에 놀라 도망간 후에도 15일 또 공수부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원칙이나 방침이 없이 서울역에 나갔다가 회군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

네 번째, 지도력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서울대 학생회는 서울역 회군을 주도함으로 지도력의 파산을 선고받았다. 이미 연대는 가두진출을 막는 학생회장단 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내부 토론을 통해 서강대, 홍대, 명지대 등 6개 대학과 함께 13일 밤 광화문 가두시위를 감행했고, 고대는 서울대가 주도한 서울역 회군에 실망한 후 16일 4.19묘지 참배 행진 등 독립적인 행동을 했다. 서강대도 1학년이 집체훈련 마치고 돌아오는 16일 신촌 로타리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용산역에서 학교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외대도 이미 5월 7일 오후 8시경 600명이 후문을 나와 400명은 석관동 쪽, 200명은 경희고 쪽으로 나와 고대를 지나 제기동으로 진출했었다. 서울역 회군 이후 서울의 학생운동은 다시 결집할 기회와 근거지 뿐 아니라 학생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려 광주민중항쟁 기간 동안 의미 있는 동원이나 연합행동을 하지 못한다.

2. 버스에서 회장단의 회군 결정은 있었나?

〈표 1〉 집단별 회군 결정주체 및 입장

소속	이름	15일 행적	회군 결정 주체	회군에 대한 의견
학생회	심재철	오후 4시 대우빌딩. 5시 서울역 그릴 다녀옴. 그 외에는 버스 상주	오후 5시 회군선언. 신현확 담화 듣고 남대문서 방문.	회군 주도

소속	이름	15일 행적	회군 결정 주체	회군에 대한 의견
장단			8시반 회군선언	
	신계륜	고대와 시경 앞에 있다가 회군 소식 듣고 버스에 늦게 옴	회군방송 듣고 감. 심재철, 이홍동이 회군 통보	회군 반대
	윤여연	송전대 대오에 있다가 그릴 갔다가 버스에 늦게 옴	서울대가 회군하겠다고 했다. 전체결정 없었다	회군 반대
	박성혁	서강대 대오에 있다가 버스에 옴	이수성이 강력히 설득	회군 반대
	박광호	연대 대오에 있다가 버스에 와서 심재철과 남대문서에 다녀옴		
	형난옥	숙대 대오에 있다가 서울역 그릴에 갔다가 늦게 버스에 옴	함께 결정한 바 없다	회군 반대
	안숙	이대 대오에 있다가 버스에 와서 심재철과 남대문서에 다녀옴		
서울대 총학	유시민	이수성, 심재철과 차 타고 서울역 옴. 대우빌딩 갔다가 나와 최영선 말 듣고 버스에서 회군 반대 연설함	회장단이 결정함	회군 반대
	이홍동	14일 시위 반대. 버스 논의 적극 참가	회장단이 결정함	회군
서울대 재학생 지도	현무환	대우빌딩 있다가 버스 주변 맴돌	회장단이 결정함	회군
	최영선	한일빌딩 옥상에서 남명수와 서울역 옴. 김병곤, 박석운, 이원주는 대우빌딩 있었고, 유시민에 반대연설 지시	회장단이 4시 쯤 결정	회군 반대
	김	대우빌딩에 이원주, 현무환과 같이	회장단이 결정해 각	회군

소속	이름	15일 행적	회군 결정 주체	회군에 대한 의견
부	명인	있었고 결론 못냈다.	대학에 연락해 회군	불가항력임
서울대 대학 복합 학생 지도 부	김병곤	대우빌딩에서 결정해 버스로 감		
	박석운	대우빌딩에 늦게 감. 전달하려는데 이미 결정 발표	회장단이 결정	그대로 남았어야
서울대 투쟁 파	이선근	서울대 대오	김병곤이 30분 후 철근 알려주고 버스로 감	회군 반대
	박문식	서울대 대오		회군 반대
	최민	4시경 버스에서 이수성, 심재철 만나고 끝까지 있다가 셋이 서울대로 타고 옴	심재철 처음부터 회군 결심. 회군은 무림이 함	회군 반대
연대 대학 학생	강성구	연대 대오 이끌고 서울역 감	회군 연설 듣고 실망	회군 반대
	이기택	연대 대오	회군 연설 듣고 분개	회군 반대

* 유시민은 회군이 신념이었으나 조직의 입장으로 회군 반대를 연설함

회장들이 버스에 올라오자 처음부터 서울대 이수성 처장, 심재철 회장, 이홍동 학생활동위원장이 함께 일관되게 회군의 불가피성을 역설했고,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회장들이 반대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통보하고 밀어붙였다. 이렇

계 회군 결정이 오후 5시경 발표된 것이다. 이후 신계륜 회장은 경찰 쪽에서 나오는 학생 철수 발표를 듣고 버스로 사실을 확인하러 간다. 이홍동(2018, 35)에 따르면, “신계륜과 심재철이 논란을 벌였죠. 신계륜은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고 심재철은 일단 해산하자 그런 것이었다. 신계륜은 군부를 밀어붙여야 된다. 심재철은 오늘 모인 것이 그걸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전국적인 대오를 갖추고 군부와 정면으로 한판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저는 해산하자는 입장이었다. 서울역 집회가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흐름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모일 거라고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좀 많이 당황했었다.”

회장들은 서울대의 연락을 받거나 찾아서 버스에 왔으나 회장 10명도 모여 회의를 할 기회가 없었다. 평소 논의를 주도하던 대학들조차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심재철은 자신의 책에서 오후 7시 50분 신현확 담화문을 듣고서야 자신 있게 명분을 가진 철수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엄한 훈계 끝에 ‘정치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우빌딩 옆에 있는 남대문서에 가서 내무장관과 통화하여 안전귀가와 연행자 석방 약속을 듣고, 8시 30분 이후에 버스 위에 올라가 서울역 회군을 발표한다(심재철 1997, 123-127). 두 번의 발표가 이루어진 이유는 5시경 회군을 발표하였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철수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학생들은 움직였다. 일방적 결정을 발표한 회장단을 욕하며 학교 대오를 떠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비분강개했다. 학생 대오가 학교별로 움직인 것은 9시부터 9시 반 사이였다. 반발도 많았다. 연대의 경우 박광호 학생회장이 마이크로버스에서 돌아와 연대생들에게 회군을 통보하자 이기택은 “10만 명 모으기 진짜 힘든데 그럼 뭐할려고 나오라 그랬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난 길길이 날뛰었다”(이기택 2022)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오후 9시 단국대를 시작으로 서울대와 이대, 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후 9시 반 송전대, 고대, 동덕여대가 마지막으로 출발했다.

버스 안에서 이수성 처장은 “이미 학생들의 주장은 충분히 국민에게 알려졌다.

오늘처럼 언제든지 다시 나와서 알릴 수 있다. 이제 저녁이 되어 가는데 더 있으면 대단히 위험하다. 효창운동장에 공수부대가 와 있다는데 철수하지 않으면 군무원의 명분이 된다. 그만 학교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다(박성혁 2022; 윤여연 2022, 36). 이흥동은 지난 회장단 회의에서 합의된 16일 이대회의에서 전국의 회장단이 모여 향후 활동방향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대안이 있냐고 반문했다. 신계륜과 윤여연 등 강력한 반대자는 반발해 버스에서 내렸다. 결국 서울대 총학과 이수성 처장이 회군이란 일방적 분위기를 주도했다. 5월 들어 학생회장단 회의에 이십여 개 대학이 출석했는데 오후 5시경 회군 논의 때는 한 자리수 대학이 모여있었다. 따라서 회장단이 버스에서 회의를 통해 회군을 결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서울대 총학이 반대 학생들을 해산할 명분을 위해 회장단 회의 형식을 활용했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마이크로버스는 심재철이 편의를 위해 이수성 처장에게 요청하여 14일부터 나타난 대중과 분리된 공간이었다. 열화와 같은 대중의 투쟁의지와 무관하게 좁은 실내에서 논리적 우세를 점하면 뜻을 관철할 수 있었다. 13일 밤 고대 회의에서 정한 회장단의 현장회의 약속 장소는 서울역 그릴이었다. 서울대 총학이 버스를 자의적으로 동원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대가 버스로 오라고 몇몇 회장들에게 연락을 한다. 시경 앞에서 싸우고 있던 고대에게는 버스에서 모인다는 연락도 오지 않았다. 신계륜 회장이 경찰의 학생 철수 방송과 전경들의 이상 행동을 보고 스스로 찾아갔다. 그러나 이미 서울대 총학과 처장까지 세 명이 나서서 공수부대의 출동부터 전경 사망 등 근거로 공포심을 조장했고 회군 결정을 기정사실화했다.

3. 심재철의 회군 결정 이유

1) 전경 사망 사건과 공수부대 투입설

15일 남대문로타리 앞에서 누군가 세워진 48번 시내버스를 운전해 전경들을

추돌해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전경 저지선을 일시적으로 무너뜨렸지만, 군부에 명분을 준다는 생각과 여론에도 부정적 요인이라는 판단을 누구나 했을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참여가 적다는 주관적 판단도 심재철에게 영향을 준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별로 대오를 이루고 있어서 그 사이로 시민들이 들어올 수는 없었다. 시민들은 고가도로 위나 건물, 학생 대오 주변에서 지켜보며 반응했다. 인근에 있는 서울고를 비롯해 고교생들도 다수 참가했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은 신군부의 음모를 잘 알지 못했고, 기층민중운동은 학생들과 연대투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정상용 1990, 134-135). 그러나 4.19 때도 시민들이 분개하며 나선 것은 4월 18일 학교로 돌아가던 고대 학생들이 깡패의 집단적 습격을 받고 쓰러진 후였다. 5.18 때도 광주시민들이 나선 것은 학생과 시민들에 대한 공수특전단의 무차별 폭력을 보고 나서였다. 서울역 인근은 집창촌과 남대문시장, 서민 거주지역으로 유동인구도 많고 폭발성이 있었으나, 5월 15일 회군으로 그런 가능성은 사라졌다.

또 효창운동장, 잠실운동장의 계엄군 이동 소식과 6시 군 투입설(한국일보 정치부 1994, 126)이 심리적으로 큰 중압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심재철은 5월 15일 오후 4시경 마이크로버스에서 처음 만난 최민에게 효창운동장에 집결한 1,500명의 공수부대를 언급¹¹⁾하며 의견을 물었다. “공수부대 나오면 학생들 때로 죽을 거다. 위에서 낙하하면서 기총소사하면 얼마나 죽을지 모른다. 너 책임 질 수 있어? 어쩌면 좋겠니?”라고 물었다(최민 2020, 37). 아직 회장들이 오기 전에 이수성 처장만 있을 때였다. 최민은 겁이 나서 신념인 투쟁론을 얘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공수부대의 공포와 총책임자라는 압박감이 심재철 회군 결정의 가장 큰 객관적 요인이라 본다.

11) 실제론 공수부대가 아닌 20사단이었지만 역시 총정훈련을 받은 계엄군으로 큰 차이는 없다.

2) 이수성 학생처장의 영향

심재철은 서울역에 왔을 때 이미 회군 결심을 확고히 하고 학생회장 한명 한명을 설득했다. 심재철이 어떻게 12시 정오 양평에서 출발해 오후 3시 50분 효창운동장에 도착한 20사단 62연대가 왔는지 알았을까? 휴대폰도 삐삐도 없던 시절이었다. 심재철은 시민들의 학생회 제보 전화를 통해서 알았다고 말했다(심재철 1997, 122). 그랬다면 확인도 없이 믿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언론계의 선배나 이수성 처장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당시 서울대 학생처장은 중정, 보안사의 서울대 책임자들을 업무상 접촉했다. 실제 80년 당시는 대학교 학생처가 운동권 학생 동향에 대해 경찰과 관계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일상 업무였다. 당시 서울대 중정 책임자는 노무현정부 때 국정원장이 되는 김만복이다. 그는 서울법대 66학번으로 59학번 법대 선배인 이수성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계엄사에서는 학총장 회의와 별도로 학생처장 회의를 하기도 했다. 그들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거나 협박도 받을 수 있다. 불과 몇달이지만 학생회장의 파트너로서 학생처장은 다양한 사안을 의논하고 때론 지원하면서 신뢰를 쌓아왔다.¹²⁾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결정적인 때 역할을 할 수 없다.

특히 15일 서울역에 갈 때 승용차에 동승해 유시민과 심재철에게 학생의 안전이란 명분으로 계엄군 동향과 철수의 불가피성을 얘기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서울역에서 마이크로버스에 타려는 회장들 신원 확인을 했고, 회장들에게 귀교의 불가피성과 함께 오늘의 성과를 칭찬도 했으며, 마지막엔 심재철과 함께 남대문 경찰서로 가서 내무부장관과 안전귀가 및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통화를 주선

12) 한 예로 4월 10일 농대에서 어용교수 문제로 학생들이 강의실에 못을 박아버리자 학생처장이 요청하고 심회장이 농대 학생회장에게 연락해 속히 학생들을 해산시키라고 지시한다. 집회 시 엠프나 4.19묘소 방문, 수원 김상진 열사 장례식 때 스쿨버스 요청도 100% 수용했다. 학생들이 주도한 총학생회를 처장이 책임지고 인정했고 예산문제도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총학 뜻대로 쓸 수 있게 해주었다. 복학생들의 복학 시 편의도 고려했다.

했다. 이수성 교수는 심재철에게 공수부대의 이동을 알려 적극적으로 회군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이수성 처장은 심재철과 유시민을 데리고 15일 오후 3시경 서울역에 도착한 후 대우빌딩 21층의 어느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한다(유시민 1980, 3099-3100). 이수성 처장이 국제경제연구원에서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와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의 영향

회군에 확실한 신념을 가졌던 서울대 총학 3인 대표자에 비해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는 입장이 엇갈린다. 복학생 지도부와 재학생 지도부가 서울역 앞 집회 현장이 한눈에 보이는 대우빌딩 21층 국제경제연구원¹³⁾에 모였었고, 현장에서 오늘의 방침에 대해 논의와 결정을 하였으며 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결정 내용과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가장 선배였던 김병곤은 주장이 다른 후배인 이선근에게 “대우빌딩에서 결정했고 30분 후 철군한다”라고 지침을 알려주고 버스로 향해 갔다고 한다(이선근 2019, 25-26). 김명인은 “우리 언더 지도부는 대우빌딩에서 결론을 못냈다. 나는 좀 왔다 갔다 했지만 마지막으로는 회군 결정하지 말자. 일단 끝까지 가자. 근데 전경 버스를 누가 몰아서 전경이 치어 죽었다. 그것과 계엄군 집결 두 가지 악재가 있었다. 해산 의견 근거가 거기서 많이 나왔다”(2019, 64-65). “좀 왔다 갔다 하고 결론을 못냈다. 회군을 결정한 적은 없다. 그러나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다”(김명인 2019, 71-72). 회군 결정은 부인하지만 대책이 없어 회군이 대안이었다고 해석된다. 최영선은 “이원주 형도 김병곤 형과 대우빌딩에 같이 있으면서 해산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고 그런데 심재철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2017, 63). 최영선은 대우빌딩에 가지 않아 가장 지도부

13) 이 연구원에는 김병곤과 상대 동기인 무역학과 이목희가 77-79년까지 근무했고, 김상곤, 강철규, 이근식, 김태동 교수도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국책연구소다. 원래 중동문제연구소로 시작해 80년 당시 국제경제연구원이다가 해외정보연구원(KIEP)으로 바뀐다.

논의에서 자유로웠고, 운동가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른다.

현무환은 “학생회장단이 투쟁정신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희생을 감내 하기에 20대 초중반의 나이로는 너무 과중한 무게였다. 재학생지도부는 결정적 시기에 투쟁에 철저하지 못했다. 즉 중요 결정을 학생회에 방치한 점과 운동에 대한 관념적 집착과 대중운동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 국민회의파는 이 시위를 견인했음에도 아무런 준비도 기여도 못했다”(현무환 2006, 37)라고 한다. 기저는 민주화의 길 10호(1984)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구술에서는 더 공격적이다. “가정할 수는 있지만, 현실로서는 16일 날 전국 어느 대학도 교외로 나간 적이 없었다.”, “이한열 때도 100만 명이 모여도 시위전술이 유효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현무환 2019, 106). 회군 외에 대안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석운은 “대우빌딩에 늦게 가 잘 모르겠으나 아마 토론했으면 버텨야 되는 게 맞는 거죠”(2017, 40)라고 한다. 요약하자면, 결정된 책임은 학생회에 있고 우린 지도를 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준비론 같은 철학의 잘못은 아니며 대중운동의 역동성에 대해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회의파가 준비되지 않은 투쟁을 만들어놓고 아무 역할도 못했으니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회군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다.

전달 여부에 대해서도 김명인은 “76, 77언더가 전령을 보냈으나 도착하기 전에 끝났다”라고 한다. 현무환과 박석운, 최영선은 늦어서 전달하지 못했다 한다. 결과적으로 심재철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전달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 중 유일하게 다른 견해를 밝힌 인물이 최영선이다. 그는 대우빌딩이 아니라 인근 한일빌딩에 있었다. 그래서 대중의 열기를 보고 사회대 후배 유시민에게 버스에서 회군 반대 연설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최영선 2017, 62; 유시민 2021, 221). 최고 선배인 김병곤은 회군을 반성하고 있다. 5월 17일 대의원회 의장실로 유시민을 찾아가 김병곤은 “복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해봤는데 준비 없이 나간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하다가 스스로 해산해 버린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시위의 시점은 선택의 문제였지

만, 시위 자진 해산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다시 싸움을 재개해야 됩니다”(유시민 1992, 245)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회는 두 번 찾아오지 않았다. 학생운동이 놓친 타이밍을 신군부는 놓치지 않고 5월 17일 자정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함께 18일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전면 공격을 개시한다.

‘가장 큰 후회는 서울역 회군이었다’는 김병곤의 유언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부인 고 박문숙과 가까웠던 고 이범영 부인 김설이도 같이 유언을 듣고 이를 전했다(이선근 2019, 28). 왜 그는 ‘서울역 회군이 천추의 한’이라고 유언했을까? 왜 이선근에게 30분 후 철수라고 했을까? 왜 유시민에게 17일 시급히 다시 가두시위를 준비하자고 했을까? 왜 민주화의 길 10호에서 전술적 오류라고 정리했을까? 김병곤이 내린 결정은 ‘회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V. 학생운동의 역량과 선택에 대한 분석

1. 준비론이 지배한 서울대 학생운동

‘준비론은 6-70년대 군부독재 정권 아래 폭압이 계속되고 노동자계급의 형성이 늦은 상황의 소산이다. 향후 변혁의 주력군이 될 노동자계급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명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당면한 투쟁을 피하고 향후 현장투신에 문제가 되지 않을 합법적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힘을 키워 결정적인 순간에 몸바쳐 싸우자는 사회운동 내부의 경향’을 의미한다. 80년 5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오후 7시 50분 신현확의 성명이 나올 때까지 심재철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 전에 버스에 탄 윤여연과 신계륜이 이미 회군이 결정됐다고 반발했는데, 그때까지 최종 결론은 아니었다고 심재철이 증언하는 것이다. 심지어 신계륜은 경찰차에서 나온 학생 해산 방송을 듣고 버스로 갔다. 이미 마이크

로버스에서는 심재철의 주장대로 회군으로 결론내고 올라오는 사람에게 통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신현확 발표 후 심재철이 남대문서에 가서 내무부장관에게 안전귀가와 연행학생 석방을 약속받은 뒤 최소한 오후 8시 반은 넘어서 다시 회군 발표를 한다(심재철 1997, 118-130). 신계륜이 들었다는 경찰방송을 이 시간으로 보긴 어렵다. 최영선도 유시민에게 해산하면 안될 것 같다고 했는데 4시 쯤 회장단이 해산 결정을 했다고 증언한다(2017, 64). 이 사실로 15일 최소 두 번의 회군 발표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최초에는 다수 회장단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회군을 발표했고, 학생들도 대다수 움직이지 않았다.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학생회가 먼저 회군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이 시점을 가리킨다고 본다.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4명의 요한교육원 야학교사는 심재철을 비난하며 대오에서 나와 한낮에 돈암동에 가서 울분 속에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다(채기 2023).

서울대 학생회에서 이홍동과 심재철은 당일 일관된 회군 불가피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신념은 실천 속에서 증명된다. 그 대표적 사례는 80년 5월 12일에는 농성을 하다가 군 출동 소식에 놀라 긴급히 농성을 해제하고 학교 밖으로 도주한다. 이 사건은 다음날 거짓 정보로 드러나면서 학생들에게 비판받고 결국 14일 가두로 진출하는 내적 계기가 된다. 외적 계기는 13일의 연세대 가두 진출과 고대에서의 학생회장단 회의에서 내린 가두 진출 결의이다. 회의에 서울대 대표로 참석했던 유시민이 불가피했다고 심재철에게 통보했고, 심재철은 14일의 가두시위에 대해 “마치 바늘에 코가 꿰인 생선처럼, 그렇게 끌려나가다시피 거리로 나섰다(1997, 116)”고 한다. 그리고 절정은 20만 명이 모인 15일 서울역 집회와 회군이었다. 역시 군 출동이 없으면서 16일 아크로폴리스 집회에서 서울대 총학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한다. 그러나 서울대 총학에게 15일 서울역 회군은 그동안 보여준 행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심재철은 12일에도 공수부대가 왔다고 농성을 해산했고, 14일에도 영등포로타리에서 이수성 교수 말 듣고 철수하려 했으며, 15일 최민에게 얘기한 ‘공수부대 공포론’도 투쟁 회피가 본질이란 점에서

준비론의 연장이다.

학생회 뿐 아니라 학생운동 지도부도 4-5월 대중운동의 고양과 이후의 진전에 대해 너무 몰랐고, 5월 14-15일과 같은 대중 열기의 폭발에 당황했었다. 어떻게 든 내부 의식화와 다른 학교와의 보조를 명분으로 가두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침이었다. 특히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에 아쉬운 것은 역량이 충분한 서울대는 과격한 흐름의 억제보다 지방대학 의식화와 연대에 노력했으면 하는 점이다. 초기엔 가두진출을 주장했던 일부 복학생들이 정치권의 영향으로 가두진출에 부정적이 되었다. 그러니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의 준비는 부족해지고 학생회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전령이나 척후, 비상연락망, 비상사태 시 2차, 3차 계획. 그때의 주동, 유인물, 화염병, 투쟁도구 등 아무 준비도 없었다. 송진대의 경우 5월 15일 화염병을 포함한 실무준비에 척후와 전령을 포함해 연대 단위의 조직편제까지 갖추고 2500명이 지휘자의 북소리에 맞춰 행진했다(윤여연 2022, 35). 반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준비론의 영향으로 학교 집회 때 논쟁에서도 투쟁파에게 밀리게 되었고, 할 수 없이 가두진출에 동의하는 형국이 되었다. 전방입소 반대투쟁의 방향을 바꾼 5월 2일 총회부터 5월 12일 공수부대 유언비어와 농성 해산, 5월 15일의 서울역 회군 다음 날 학생총회 등에서 학생회는 위기를 어렵게 넘겼다.

2. 안이한 정세관 평가

서울대 재학생 지도부였던 현무환은 “만에 하나 회군이 잘못이었다면 다음날 회군 비판과 가두진출이 있었어야 했다”(현무환 2006, 38)라고 썼다. 최민의 구술(2020, 39)에서 16일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대 학생총회에서 회군한 지도부를 변호하는 박성현의 ‘캐터필러 발언’이 나왔고, 윤성구(2020, 25-26)도 “급격한 해산이 결정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날 회군이 옳았다. 싸워야 됐었다는 얘기가 다음날부터 서울대 교정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

나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군부는 계엄 확산을 실행에 옮기죠. 적어도 그 당시에 계엄 확산에 대응하는 좀 더 현실적이고 투쟁적이고 헌신적인 주장이 자기 주장을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수준이 그런 것들을 결정했다”라고 한다.

손호철(2018. 298-299)은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을 통해 다수 온건파를 누르고 군을 장악했으며 루비콘강을 건너 정권을 장악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2.12 이후에도 야당 지도자들은 적전 분열했을 뿐 아니라 제도 정치권에서 최소주의적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학생운동과 재야를 상대로 이런 방안을 설득하는 오류를 범했다. 특히 안이한 낙관론은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액면 그대로 믿은 ‘순진한 대미관’에 기인한다. 5.15 서울역 회군은 결정적 오류였다. 정면승부를 택했어도 승리했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5.18보다는 승리 확률이 높았을 것이고 충격도 컸을 것이다.”라고 한다.

저자는 ‘결정적인 싸움 때까지 의식화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그때 힘을 다해 싸운다’는 준비론 때문에, 20만 명이 운집했지만 5.15 서울역 투쟁은 결정적 시기가 아니라고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는 판단했고 결국 기회를 놓쳤다고 본다. 상대는 권력장악이란 목표와 물리력, 정보력, 심리전 능력까지 갖춘 신군부였다. 그러나 이미 학생운동 지도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우유부단이 아니고 후퇴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전의를 상실하면 싸움은 끝난 것이다. 정상용의 평가다. “갑자기 시위에 나선 탓으로 선전수단과 가두투쟁 조직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은 오류였다. 그러나 전면적 가두투쟁을 이미 벌여놓은 상태에서 20만 군중의 힘과 의지를 일시에 무산시킨 것은 더 치명적 잘못이었다. 12.12쿠데타 당시 육군본부측이 상호 병력동원을 중지하자는 신사협정을 믿다가 싸워보지도 못한 채 패배를 맞은 것처럼, 학생회 지도부도 스스로 무장을 해제함으로써 괴멸의 길을 택한 것이다”(1990, 137).

3. 학생회장단에 대한 평가

연대가 3월 27일, 서울대가 3월 28일, 송전대가 4월 8일, 고대가 4월 10일 총학생회를 구성했다. 이후 학교에 따라 학생회나 학부추, 학자추를 만들었다. “4월 15일경 전국적으로 총학장 퇴진투쟁(21개), 어용교수 퇴진투쟁(24개), 재단비리 척결투쟁(12개), 학교시설확충투쟁(11개)이라고 보도할 정도로 학원민주화를 촉구하는 열기가 드높았다”(김영택 2010, 220). 4월 18일 문교부는 대학교 현황이 휴교 19개교, 철야농성 24개교, 어용교수 퇴진요구 24개교, 시설확충 요구 11개교, 학원자율화 요구 20개교라고 발표했다. 당시 학생회장단 모임은 협의체 수준이었지만 4월 중순에는 거의 매일 모여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확인된 17회의 회의 진행에서 논의 주제를 보면 초기의 병집 거부가 철회되고 정치적 이슈로 전환이 결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월 11일 서울대 모임에서는 처음 참가한 대학들이 대학 특수성에 맞춰 활동하자고 공동투쟁을 부담스러워하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연대 등 투쟁파의 목소리가 강한 학교에서는 13일 저녁 광화문 시위를 예고하는 등 난상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는 전국대학생연합회 결성에 합의했고 17일 이대에서 실제 결성한다. 13일 밤 회의에는 시위 중 연대생 사망설이 전해지고, 신군부가 물러날 때까지 계엄철폐를 요구하는 무기한 전국적 가두투쟁을 결의하는 반전이 일어난다. 시위 방법과 범위에서는 5월 11일 까지도 교내시위로 제한한다는 결의를 했지만, 5월 13일 밤 고대 회의에서 가두투쟁이 결의됐다(윤여연 2022, 28-37). 13일 연대 대표로 참석했던 이기택(2022)은 처절하고 절박하게 선동했다고 그 날을 기억한다.

〈표 2〉 80년 학생회장단 모임 정리

일시	장소	주최	참석자	논의 및 결정 사항
4.9	신촌 청원		서울대, 송전대, 이대	-첫 모임으로 확대 결의

일시	장소	주최	참석자	논의 및 결정 사항
4.10	신촌 청원		서울대, 숙대, 송전대, 이대	-학생회 구성 실태와 학내 민주화 상황 공유 -앞으로 수시 모임 갖고 의논하자
4.12	신촌 청원		고대,서울대, 숙대,송전대, 이대	-성대 병영집체훈련 거부농성 현황 설명 -중앙대, 한대 재단 횡포 문제 설명
4.14	신촌 청원		고대,서강대, 서울대,성대, 숙대,송전대, 연대,이대,심재철,이홍동, 유시민	-성대 병영집체훈련 거부 논의 -한대 재단 횡포 문제에 보조, 경희대 모금결의 -4.19기념행사로 4.19의의 살리자
4.16	신촌 청원		건대,고대,동대,서강대,서울대,서울여대, 성대,성신여대, 숙대,연대,외대,이대,중대, 흥대,심재철, 이홍동	-병집 거부 철회, 정치적 이슈로 전환 결의 -심재철이 1차 대국민 공동성명(9개대) 초안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연대서명
4.17	연대 학생회실	연대	재경 10개대	-정부주도 개헌 반대, 양심범 석방 복권 복직, 비상계엄령 해제, 과도정부 기간단축, 언론자유 보장, 족벌재단 퇴진. 1차성명 연대박광호회장낭독
4.20	신촌 청원		재경 10개대	-10개대 회장 이룸으로 전방입소 거부 결의 -한대 등 사립대 재단 횡포 비난 결의문
4.24	신촌 청원		재경 10개대	-사북항쟁(4.21)에 대한 진상 확인 및 대응 논의 -성대 등 병집거부 해결방안 논의
4.28	종로 한일관	성대	재경 10개대, 심재철,이홍동	-5월엔 교내시위를 교외시위로 학생운동방향을 사회민주화 전환 찬반논의. 심재철,동덕여대 논전 -대중동원 확대하는 방안(신문고 설치,과토론회,단체 토론회,비상학생총회) 논의

일시	장소	주최	참석자	논의 및 결정 사항
5.3	서울대 학생회관	서울대	재경 10개대	-서울대, 여론고려 입영결정설명,5.2집회 만명참석 -학내 대자보작업 강화해 분노 고조시키자 -5.4운동 본따 남대문시장등 서민거주지 선전강화
5.6	홍익대 학생회	홍대	재경 9개대, 이홍동(심재철 광주 신김, 불참14)	-5.14 전까지 시위양상 논의하고 전국대학에 통보 -5.15 일제히 교외연합 시국성토대회 감행하자
5.7	명지대 강당	명지대	재경 12개대	-앞으로 민주화대행진운동 바탕으로 학내문제에서 투쟁방향을 학외문제로 돌린다 -총학 구성 못한 대학 문호개방, 2차성명서 검토
5.9	고대 학생회실	고대	23개대, 이홍동,유시민	-건대는 서울대회장의 무책임한 15일 봉기설 공격 -휴교령이 내리면 즉각 가두시위 전개는 이익없음 -영등포R, 신촌R,동대문운동장,청량리역 장소 결정 -10일 2차시국성명서 인쇄 이홍동,작성발표신계륜 (비상계엄 즉각해제, 전두환,신현확,유신잔당 퇴진)
5.11-12	서울대 학생회관	서울대	26개대(7개 신학대, 2개 지방대 포함) 45명, 심재철,이홍동, 유시민	-대학별 활동하자. 외부세력 간섭금지. 휴교령 내리면 즉각 가두시위. 12-17일 교내 평화시위 한다 -연세대 등 13일 광화문에서 시위 통보 -전국대학생연합회 결성한다. 당장은 보류한다 -5.16 신총리와 TV대담 제의. 개헌과 계엄령해제 답변 촉구. 방송취재는 생방송만 함 -15일 봉기설 공식부인. 12일 3차 성명서 발표 -5.16 이대 학생회장단 회의에서 행동강령 결정
5.13-	고대	고대	33개대, 35명.	-12일 서울대 농성 해산 보고

일시	장소	주최	참석자	논의 및 결정 사항
14	학생회관		유시민	-13일 연대 광화문시위 사망자 발생 보고(이기택) -신군부 물러날 때까지 <u>무기한전국적가두투쟁결의</u> -휴교시 영등포R, 신촌R, 공덕, 동대문운동장, 청량리역 -5.14 전대학 일제히 교의 진출한다
5.15	고대 학생회관	고대	25개대	-양일간 시위는 많은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16일은 학생 지치고 이대 회의있어 시위 없다 -5.16 이대 전국회장단회의 열어 향후대책 강구
5.16-17	이대 학생식당	이대	59개대(서울30개대), 96명. 심재철, 이홍동, 박명기, 김명인 + 김병곤, 이해찬 방문	-행동통일 위한 <u>전국대학생연합회</u> 구성. 회장 심재철, 부회장 안숙, 대변인 형난옥 -문교부장관 대담 요청하기로 결정 - <u>신현확, 전두환 퇴진, 정치일정 공개, 비상계엄 22일까지 해제 안하면 23일(금) 시위</u> -노동자 농민이 가세하도록 홍보활동 강화하자 -고대 동아일보 불매운동 동참 호소. 양심범 석방

*서울대는 학생회장 심재철이 아닌 사람이 참가했을 때는 참석자 끝에 이름으로 표시함
*4월 8일(서강대 주최 7개대 모임) 모임, 확대된 10일 모임은 둘다 유시민이 병집투쟁을 복학생들 영향없이 대중조직인 학생회장 모임에서 논의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임. 심재철도 그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임
*음영은 선언문 발표나 중요 논의가 있는 경우임. 밑줄은 선언문, 조직상 변화, 중요 이슈를 강조함
*출처는 유시민(1980), 심재철(1980), 노영기(2020), 윤여연(2022), 형난옥(2022), 계엄상황일지(1980).

심재철은 15일 오후 7시경 마이크로버스에 올라온 윤여연 송전대 학생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님, 저희는 철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서울대의 회군 결정을

- 14) 전남대 총학에서 박관현, 송선태, 양강섭과 만나 “곧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 연합체를 구성한다.”, “서울 계획은 변경이 없는가. 서울이 무너지면 광주도 고립된다. 우리는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대화를 나눔(광주매일 1995, 119)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곧이어 고대 신계륜 회장에게도 마찬가지다. 버스에 올라와 항의하는 그에게, 이홍동은 회군 결정 이유의 설명과 함께 회군 이외에 대안은 뭐냐고 공세적으로 질문했다. 이런 태도로 서울대는 회군을 강제했다. 심재철은 서울역에 왔을 때 이미 회군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신계륜은 “버스 안에서 대중과 고립된 채 결정할 일이 아니고 대중 앞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했다”(신계륜 2022)라고 얘기했다.

학생운동의 전국조직을 구성하지 못한 것은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의 한계라 지적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런 시도는 학생운동사에 꾸준히 있었다. 1970년 3월 창립한 경북대 정진회는 1971년 대선을 앞두고 3선개헌반대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운동의 전국화라는 목표를 정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1970년도에도 전국조직을 준비했었는데, 대중운동의 고양이가 예고되는 1980년 상황에서 서울대 학생운동은 79년 말 학생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재학생 지도부는 운동을 이끌 통합적 지도부가 없었다는 게 80년 5월의 가장 큰 패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현무환 2019, 107). 87년 6월항쟁 때 국본과 같은 부문운동을 망라하는 지도부가 없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한계’였지만, 80년 5월 대중운동의 지도부는 서울의 학생회장단 모임 뿐이었다. 모임은 기획 및 전투조직은 물론 의장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 학생회장들은 상당수가 운동권이 아닌데도 스스로를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역 회군 이후 회장들은 대부분 경찰에 잡혀가서 고생했고 이후 학교에서 제적되고 군에 강제징집되면서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받았는데, 돌아온 것은 서울역 회군을 결정했다는 불명예였다.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국무회의 통과 이전에 경찰이 이대를 습격한 것은 학생회장단이 17일 전국대학생연합회를 결성하고, 부산의 연합철강(1,500명), 동명 목재(2,000명)의 농성, 문경 삼창광업, 사북 동고광업의 작업 거부, 심지어 16일 신설동 대광고에서 고교 학생회장 모임, 17일 경인지역 전문대학생회장단모임까지 열린 영향이 크다(계엄상황일지 1980, 2-10-30). 특히 14일 신민당이 계엄해제 결의안을 내고, 20일 제104회 임시국회에서 계엄해제를 논의한다는 사실이

신군부에 위기의식을 주었다고 본다.

4.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는 역할을 했는가?

심재철은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가 회장으로 인선했고, 현무환이 심재철에게 제안했다고 한다(현무환 2006, 26). 심재철 또한 77학번 재학생 11인 지도부이자 그중의 3인 비밀 재학생 지도부였다. 학생회 회장이라 하여 비합법조직보다 떨어지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된다. 더구나 농법학회 출신인 그가 가진 준비론 신념은 서울대 학생운동 핵심에 상당히 공통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서울역 회군은 결코 심재철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지속적으로 김병곤 등 복학생들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왔다. 80년 3월 말, 영등포 어느 중국집에서 김병곤, 이해찬, 김광한, 김경택, 김부겸, 연성만, 김명인, 이홍동이 만났다. 재학생들은 우선은 학생회가 뿌리를 내리는 일이 중요하니 학원 민주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고, 복학생들은 비상계엄 문제를 학원 민주화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얘기했지만 결론은 학생회 정착을 위해 협조하기로 한 것이 첫 번째 만남이다(심재철 1980, 12). 이후 4월 14일 영등포의 중국집에서 이해찬, 김병곤, 원혜영, 이홍동 등 9명과 회합해서 병영집 체훈련 거부 농성은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이 결여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비상계엄 연장의 구실이 되므로 이를 철회하고, 비상계엄해제, 정부 주도 개헌 반대 등 정치 문제로 전환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심재철 1980, 35-36). 이 만남은 5월 1일 운영위에 이해찬, 김경택, 김광한, 김부겸, 연성만 등 복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병집 입소거부 철회 결정으로 이어진다. 2일 아크로폴리스에서 김부겸의 연설을 거쳐 3일 예정된 병영훈련에 신입생들이 입소하게 된다.

그리고 5월 10일 이해찬으로부터 5월 8일 개최한 민청협 간부회의에서 결의된 행동강령을 전해 들었고(심재철 1980, 13), “5월 12일 김병곤은 심재철에게 ‘계엄군이 13일 00시-03시 수도권을 점수한다. 그리고 휴전선 부근에 긴장이 있

다. 방송국에서 확인된 것이다.’라 했고,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농성하는 학생 뒤처리를 저에게 맡긴 후 총총히 복도를 빠져나갔다”(유시민 1980, 3086)라고 한다. 서울대 농성 해산 사건 얘기다. 5월 15일 마이크로버스 안에서 대책을 논의할 때에도 김병곤이 대우빌딩에서의 결정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갔고, 이미 버스 내부 회장단 회의는 이홍동 학생활동위원장이 옆에서 공개적으로 지원했다. 그 외에도 “학생회관 뒤 잔디밭 한켠에서 수시로 비공개 지도부와 회의를 가졌다”(유시민 1992, 244)는 증언처럼 재학생 지도부가 필요할 때 지원했다. 그러나 ‘공수부대의 공포’란 신군부의 심리전을 극복하지 못했다.

5월 16일 18시경 이대 회장단 회의 도중 심재철은 호출을 받고 나와 이해찬, 김병곤 등을 접촉해 국민연합 결의사항을 전달받았다. “5월 19일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신총리는 사임하며 전부장이 겸직에서 물러날 것 같다. 고로 국민연합이 정한 5월 22일을 시한부로 정하고 요구조건이 그 때까지 관철되지 않으면 일제히 봉기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긴급소식을 심재철이 회장들에게 전하고 ‘어디서 온 연락이나? 믿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받자, ‘서울대의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온 연락이다’고 대답했다”(심재철 1980, 41,134). 이홍동은 “심재철이 서울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입수한 정보”(이홍동 2018, 42) 라고 학생회장들에게 소개했다. 이 마지막 접촉에서 복학생들의 얘기는 당시 학생운동의 상황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고 그 내용은 신군부의 역정보공작 심리전에 휘말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엄을 해제한다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의 반영이 5월 23일 투쟁 계획을 며칠 앞당기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군부는 5월 17일 저녁에 행동개시를 했다. 또 5월 17일 오전 10시 경 김병곤이 서울대 총학으로 찾아와 유시민에게 “지금 우리가 유리하다. 대세를 몰아 19, 20일에도 가두로 진출해야 한다”(유시민 1980, 3106)라고 말했다.

학생회가 위기를 겪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학생운동 지도부가 대중조직의 민주주의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여러 대학이 같이 내린 병집 반대 결정을 서울대

운영위원회에서 뒤집었고¹⁵⁾, 5월 12일 계엄군이 온다는 불확실한 첩보에 의거해 서울대 농성을 해산하고, 결정적으로 5월 15일 서울역에서 심재철 회장이 일방적으로 타 대학 회장들에게 회군을 통보하고 설득했다. 심재철은 가능하면 투쟁을 피하려고 했고, 대중의 열기에 떠밀려 나섰다가도 다시 후퇴했다. 안전이 가장 중요했다면, 왜 십만 명의 대학생들이 군부와 투쟁하겠다고 먼길을 행진해 서울역에 나왔을까?

서울역 회군의 핵심적 원인은 심재철 회장 개인보다 학생운동의 가장 선진적 지휘부였던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의 준비론 경향성과 투쟁성 부재, 대중운동의 경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압도적 물리력 외에도, 신군부는 언론을 장악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유언비어에 편의대와 망원까지 운용했는데, 학생운동 지도부는 대중을 믿고 자기를 희생할 생각이 없었다. 승패의 차이는 물리력전과 심리전을 구사하는 단일한 지도부의 존재와 그 리더십의 차이였다.

VI. 결론

80년 봄에 긴 쿠데타가 나타난 것은 신군부가 12.12로 군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군부 쿠데타가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두환은 서울에서 물리력전을 준비하되 가능하면 피 흘리는 일 없이 이기려 했다. 신군부는 심리전을 통해 이 목적을 달성했고, 5.18 이후 광주에서는 처음부터 심리전과 물리력전을 동시에 전개했다. 따라서 80.5.15 서울역 회군의 본질은 공수부대 유언비어에 학생운동 지도부가 겁을 먹고 회군을 결정해 투쟁의 흐름을 끊고 재결집의 기회를 상실해 광주를 고립시키고 패배한 사건이다. 이 비겁과 방심은 결국

15) 서울대는 갑작스런 방침 변경을 병집 훈련을 이미 거부한 서강대, 성대에 통보한다. 두 대학 문무대 미입소 신입생들은 뒤늦게 경북 영천의 삼군사관학교로 입소했다. 10일 후 5월 16일 용산역에서 서강대까지 행진대열 앞에 있었던 일학년 대표 이규정은 그날 밤 11시 40분 집에서 연행되 조사받고 제적되 9월 4일 만19세로 강집당한다.

신군부의 기회가 되었다. 서울역 회군은 유신 치하에서 굴하지 않고 싸워온 민주화투쟁의 전통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린 사건이다. 서울역에서 20만 명이 모인 사건은 유신 독재 속에 YH투쟁과 부마항쟁을 거쳐 10.26 이후 사북항쟁과 5.15 서울역 집회로 이어진 민주화투쟁의 연장이자 유일한 변화의 가능성이었다. 이 맥을 끊은 것이다. 서울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회군하며 싸울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기에, 신군부는 이제 눈치볼 것 없이 광주를 봉쇄하고 마지막 저항만 분쇄하면 끝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광주는 민주 세력이 결사항전 끝에 무력진압 당했다. 그러나 그 희생정신 때문에 마침내 6월 민주항쟁의 승리를 일구어냈다(김상집 2021, 6).

서울역에서 회군을 주도한 서울대 총학생회 지도부와 이를 방치한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도 광주에서 벌어진 참극의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후 이들이 민주화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살았어도 진지하게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 광주학살의 발포명령자를 밝히는 것과 함께 민주세력 내부의 책임도 밝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연구도 논의도 없다는 것은 민주 세력 내부의 지적 도덕적 불성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단순한 이분법은 복잡한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없다. 서울역 회군은 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에 맞서 학생들이 싸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학생운동 지도부 일부가 공포감 속에서 회군을 강행하여 광주 참극의 책임을 나눠 갖게 된 사건이다. 전두환과 신군부 뿐 아니라 학생운동가들도 역사 앞에 반성할 것이 있다. 역사의 비극은 지나갔으니 소수에게 책임을 돌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들을 피해자로 치부하고 역사적 판단을 끝내면 안된다. 참회와 각성을 통해 새로운 공식적 기억을 공유해야 한다.

이 연구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학생회장단이 마이크로버스에서 민주적 토론과 회의를 통해 회군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서울대 학생회의 지도력 상실과정, 두 번 이상의 회군선언, 학생운동 지도부의 혼란과 한계, 그 한 원인인 준비론, 신군부의 심리전과 그 사례들, 대중의 공포, 이수성 교수의 역할 등을 새로 밝혔다는 점이다. 이 논문이 앞으로 증언과 자료 확보 및 공론장에서 본격적 논

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80년 서울역 회군을 10.26 이후 사북항쟁, 그리고 광주항쟁 등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내란 음모에 맞선 일련의 민주화투쟁으로 대치전 개념 속에서 함께 연구해야 한다. 또한 광주민중항쟁에서의 처음부터 개시된 물리력전과 심리전, 그와 비교하여 서울에서의 심리전도 비교연구 대상이다. 이후 87년 6월항쟁 등 다른 항쟁과 비교하는 작업도 남은 과제이다. 서울의 봄 연구에 있어서도 여야 정치권과 복학생, 미국과 재야의 태도도 본격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하나의 대치전이니 공통적인 배경을 형성하는 미국의 입장과 대응은 공식적 전문과 관련 기록을 통해 살펴봐야 하고, 당시 여야의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자료를 발굴하고 구술을 통해 평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심리전, 대치전 개념은 앞으로 좀 더 정교한 이론적 탐구가 필요하다. 서울의 봄에 대한 기억과 역사적 평가의 실종은 박정희 18년 권위주의의 종식과정인 10.26 이후 1980년의 권력투쟁을 광주민중항쟁으로 제한시켰다. 7개월의 대치전의 본질은 신군부의 권력 쟁취 시도에 대한 한국 민중의 민주화투쟁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그동안의 구술과 과거사 자료발굴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특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낸 과거사위원회들에 감사한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핵심적 증인의 증언이다. 고령의 핵심적 증인은 공론화의 진전이 있어야 증언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18. “10·26 이후 정국 전개에의 재해석—전두환과 신군부의 ‘긴 쿠데타.’” 『역사비평』 124호.
- 강준식. 2010. “강준식의 정치비사.” 『월간중앙』 10월호.
- 국방부 계엄사령부. 1980. 『계엄상황일지(1980.5.1.-5.31)』.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열람.
- 광주매일 정사 5.18 특별취재반. 1995. 『정사5.18』 상권. 서울: 사회평론.
-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2009.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9권.
- 국가기록원. 2022. 『육군본부 상황/계엄일지(1980)』.
- 국방부. 2007.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결과보고서』.
- 국정원 과거사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2007.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제5권 학원 간첩 편.
- 김동성. 1993. “80년 서울의 봄과 민주화운동의 좌절.” 『동아일보 5공평가 대토론회 자료집』.
- 김병곤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 엮음. 1992. 『영광입니다』. 서울: 거름.
- 김삼웅. 2010. 『김대중 평전1. 행동하는 양심으로』. 서울: 시대의 창.
- 김상집. 2021. 『윤상원 평전』. 경기: 동녘.
- 김영택. 2010. 『5월 18일 광주』. 광주: 역사공간.
- 김용진. 2020. “끝나지 않은 전쟁-빼라 심리전.” 뉴스타파. 7월 27일
- 김종세. 2022. “5.18의 성격과 광주 밖 전국의 5.18진상.” 『광주 밖 전국의 5.18 진상 자료집』.
- 김준. 2007.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5.18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3』. 5.18기념재단.
- 김충립. 2016a. “다들 내가 대통령해야 한다는데.” 『신동아』 8월호.
- _____. 2016b. “노태우 의리 테스트, 술상 엮은 김복동.” 『신동아』 9월호.
- 김현서. 2017. 『김병곤 평전』. 서울: 실천문화사.
- 나익갑. 2021. 『전두환의 광주폭동이라니요?』. 광주: 심미안.

- 노영기. 2020. 『그들의 5.18: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서울: 푸른역사.
- 무명씨. 1984. 80년 서울의 봄에 대한 평가. 『민주화의 길』. 9호.
- 문교부. 1980.7.10. “80 하반기 학원대책-개강시기 판단에 따른 대책.” 국가기록원 소장.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 3』. 경기: 돌베개.
- 배진영, 2013.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한미관계를 보여주는 3건의 문건.” 『월간 조선』 5월호.
- 보안사 정보처. 1979. 『부마지역 학생소요사태의 교훈』.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22. 『부마민주항쟁진상조사보고서』.
- 서울지검. 1996.1.23. 『5·18사건공소장』.
- 서중석. 2007. 『한국현대사 60년』 경기: 역사비평사.
- 손무 저. 최태응 역. 2010. 『손자병법』. 서울: 새벽이슬.
- 손호철. 1997a. “1980년 5.18항쟁:민중항쟁인가, 시민항쟁인가?” 『현대한국정치:이론과 역사』. 서울:사회평론.
- 손호철. 1997b. “국가-시민사회: 한국정치의 대안인가?”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 손호철. 2018. “한국민주화운동 비교1: 1980년 봄과 1987년 6월을 중심으로.” 『한국과 한국정치』. 서울:이매진.
- 신계륜. 2011. 『내 안의 전쟁과 평화』. 경기: 나남.
- 신철식. 2017. 『신현확의 증언:아버지가 말하고 아들이 기록한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들』. 서울: 메디치.
- 심재철. 1980. 『자술서』.
- _____. 1988년 11월 30일 광주특위 제13차 청문회 증언
- _____. 1997. 『우리는 내일로 간다』. 서울: 문예당.
- 오승용. 2012. 『5.18 왜곡의 기원과 진실』. 5.18기념재단. 광주시: 심미안.
- 왕승. 1967. 『자유중국 정치작전』. 국제홍보사.
- 유경남. “1980-2020, 5.18연구의 회고와 전망.” 『2021년 연구지원선정 학술보고서

- 및 등재논문모음집』. 5.18기념재단.
- 유시민. 1980. 『자술서』.
- _____. 1992. “대의원회 의장실에 나타난 복학생.” 『영광입니다』. 서울: 거름.
- _____. 2014. 『나의 한국 현대사』. 경기: 돌베개.
- 윤여연. 2022. “민주화의 봄의 학생운동.” 『광주민중항쟁과 서울의 봄, 전민노련』.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은우근. 2019. “5.18, 진실과 거짓말-그들은 왜 5.18을 왜곡 조작하는가?” 미발표논문.
- 이기훈. 2013. “서울의 봄 시기, 서울 광주 부산의 학생운동.” 『부마민주항쟁 34주년 기념 학술대회 ‘부마에서 광주로’ 자료집』. 민주주의 사회연구소.
- 이민규. 2020. “신군부와 언론검열.” 『신문과 방송』. 4, 5월호.
- 이선근. 2022. “광주항쟁과 전민노련, 전민학련.” 『광주민중항쟁과 서울의봄, 전민노련』.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이원주. 1984. “80년 서울의 봄의 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화의 길』. 10호. 민청련
- 이재윤. 2000. 『특수작전의 심리전 이해』. 서울: 집문당.
- 임지현. 2019. 『기억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 임혁백. 1990.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 분석: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4권 1호, 51-77.
- 재향군인회. 1997. 『12.12, 5.18 실록』.
- 전교사. 1980. “광주소요사태 분석.”
- 전재호. 2023. “1980년 ‘서울의 봄’의 좌절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권 1호, 241-261.
- 정근식. 2005. “대한민국 5.18: '광주'의 전국화 명제를 다시 생각함.” 『기억과 전망』 10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_____. 2020. 5월운동의 성과와 한계: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사이에서. 『경제와 사회』. 126호.
- 정상용 외. 1990. 『광주민중항쟁: 다큐멘터리1980』 경기: 돌베개.

- 정상호. 2018. “‘1980년 봄’을 빼앗아간 신군부와 그 공모자들—강원택의 ‘전두환과 신군부의 ‘긴 쿠데타’에 대한 반론.” 『역사비평』 124호.
- 정주신. 2008. “10, 26 이후 “서울의 봄” 과정과 민주화의 좌절.” 『동북아연구』 23권 2호, 67-93.
- 정해구. 2011.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 운동—‘서울의 봄’에서 군사정권의 종말까지』 경기: 역사비평사.
- 조성우. 2018. “민주청년협의회와 이른바 명동 YWCA 위장 결혼식 사건’ 회고록.” 『기억과 전망』 39호, 517-544.
- 조희연. 1991. “80년대 학생운동과 학생운동론의 전개.” 『사회비평』 창간호. 사회비평사,
- _____. 1995.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 관한 연구.” 임현진·송호근 공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서울: 사회비평사.
- 최석우. 1996. “아, 통한의 5.15회군.” 『사회평론 길』 1월호.
- 한국기자협회. 1997. 『5.18특파원 리포트』. 서울: 풀빛.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1. 『한국현대사 4. 1980년대 한국사회와 민족민주운동』. 서울: 풀빛.
- 한국일보 정치부. 1994. 『빼앗긴 서울의 봄』. 한국일보사. 서울: 한국문원
- 한용원. 1995.12.16. 검찰 증언.
- _____. 2012. 『한용원 회고록-1980년 바보들의 행진』 서울: 도서출판 선인.
- 현무환. 2010. 『김병곤 약전』 서울: 푸른나무.
- _____. 2006.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반란과 내란, 그리고 우리들의 민주화투쟁.” 『5월 광주를 넘어 6월항쟁까지』.
- 홍성태. 2015. 『한국사회운동의 전략과 운동리더십의 유형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의과박사논문.
- 31사단 작전상황일지(80.5.13~5.28)(77.7117).
- 7080학생운동연대. 2005.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서울. 자인.
- 7080학생운동연대. 2006. 『5월 광주를 넘어 6월항쟁까지』 서울. 자인.
- 7080학생운동연대. 2009.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서울. 자인.

John A. Wickham 저. 유은영 외 역. 1999. 『12.12와 미국의 딜레마: 전 한미연합사령관 위컴 회고록』. 서울: 중앙M&B.

Linebarger, P. M. A. 저. 유지훈 역. 2020. 『심리전이란 무엇인가?』. 경기: 투나미스.

뉴스핌. 2019.5.13. 이형석기자. ‘김용장, 허장환 증언, 광주에 편의대 있었다.’

_____. 2019.5.17. 김준희기자; ‘5.18 광주에 사복군인 있었다.’

경향신문. 1980.5.16. 1,2면. ‘신현확총리 답화문’ / 5.14-16. 시위 보도.

_____. 1980.5.17. ‘임시국회 소집 공고에도 의장 문제 여야 대립.’

동아일보. 1980.5.16. ‘시위는 군부 등장의 구실 제공.’

조선일보. 1980.5.15. ‘노총회관점거농성 35개사 노조원 해산’ / 5.14-16. 시위 보도.

한국일보. 2019.5.15. 허정현기자. 홍성택 증언, ‘나는 부마항쟁 때 편의대였다.’

UPI뉴스. 2019.5.8. “[단독] 최초공개 중앙정보부 마지막 간부진과 안기부 창설 간부 명단.”

투고일: 2023.06.22.	심사일: 2023.08.13.	게재확정일: 2023.08.15.
------------------	------------------	--------------------

A Study on the Retreat from Seoul Station: Psychological Warfare of the New Military Power and Response of the Student Movement

Oh, Saejae |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analytically reconstructs the situation in the spring of 1980 in Seoul through the oral statements and writings of student activists and the situation log of the martial law command.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were two declarations of withdrawal at the 5.15 Seoul Station rally where 200,000 people gathered, and that the role of student dean Soo-seong Lee was significan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council revealed the process of losing leadership to the public in the spring of 1980.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council and student movement leadership were influenced by the theory of preparation, and lost the opportunity to fight the military on their own due to lack of experience and sacrifice spirit in the mass movement.

The new military power carried out groundless rumors of ‘North Korea’s invasion of the South and the dispatch of airborne troops,’ unilateral reporting and control of the media, and psychological warfare using special task force and secret agents, and leaked disinformation to opposition parties and opposition figure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council made the decision to withdraw in fear. The Retreat from Seoul Station revealed th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council unilaterally argued against the student council presidents of other universities in the microbus. In Road to Democracy No. 10 (1984), the leadership of the student movem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cknowledged the tactical error of Retreat from Seoul Station, but opinions are now divided.

Retreat from Seoul station strengthened the military's confidence and

justification for suppressing violence against Gwangju, the only resistance force after the 5.18, and made it possible to concentrate the 20th division and 3 special airborne brigades. The author uses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warfare to reveal the truth of the retreat from Seoul Station, which has been neglected for more than 40 years.

Key Words | Retreat from Seoul Station, Spring in Seoul, Student Council,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Movement Leadership, Psychological Warfare, Rumors, Preparation Theory

부록

〈주요 관계 인물의 당시 직위 및 구술 채록 상황〉

	이름	학교(학번)	직위	면담일자	면담 장소	면담자
학생회 장단	박광호	연대(77)	연대 학생회장			
	박성혁	서강대(77)	서강대 학생회장	22.9.21	통화 구술	저자
	신계륜	고대(74)	고대 학생회장	17.7.12/22.5.2	신정치문화 원/신정치문 화원	민기사 (신동호) /저자
	심재철	서울대(77)	서울대 학생회장			
	안숙	이대(77)	이대 학생회장			
	윤여연	송전대(74)	송전대 학생회장	22.9.15	서울역사 카페	저자
	형난옥	숙대(78)	숙대 학생회장	22.8.29	고대병원 앞 카페	저자
	유시민	서울대(78)	서울대 대의원회 의장			
	이홍동	서울대(77)	서울대 학생활동위원장	18.8.14	현대사기록 연구원	민기사 (신동호)
	이기택	연대(74)	연대 정법대 대표	22.12.11	신일고 앞 카페	저자
서울대 복학생 지도부	김병곤	서울대(72)	민청학련사건 사형구형			
	박석운	서울대(73)	522사건 주동자	17.7.11	현대사기록 연구원	민기사 (신동호)
	이원주	서울대(76)	서울대 76재학생지도부			
서울대 재학생 지도부	김명인	서울대(77)	서울대 77재학생지도부	19.8.8	현대사기록 연구원	민기사 (배병욱)
	최영선	서울대(77)	서울대 77재학생지도부	17.7.3	현대사기록 연구원	민기사 (신동호)

	이름	학교(학번)	직위	면담일자	면담 장소	면담자
	현무환	서울대(77)	서울대 77재학생지도부	19.9.6	현대사기록 연구원	민기사 (배병욱)
서울대 투쟁파	이선근	서울대(74)	서울대 복학생	19.8.22 /22.12.10	양평 자택	민기사 (이가연) /저자
	최민	서울대(78)	서울대 재학생	20.8.18 /22.11.7	서울 사무실/통화 구술	민기사 (신동호) /저자
연고대 복학생	강성구	연대(76)	연대 복학생	08.8.11	민기사부이 사장실	민기사 (이경은) /저자
	이대수	연대(75)	연대 복학생	17.7.28	현대사기록 연구원	민기사 (신동호)
	설훈	고대(74)	고대 복학생	08.9.4/23.3.2	연남동사무 실/국회 의원회관	민기사 (김보현) /저자
	조성우	고대(68)	민청협	18.7.15	현대사기록 연구원	민기사 (신동호)